

#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권

1998年

西江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裴 峻 完

#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권

指導教授 金 榮 漢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日

西江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裴 峻 完

# 論文認准書

裴峻完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月 日

主審 白 仁 鎬 ①

副審 朴 駿 徹 ①

副審 金 榮 漢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님과 어머니께

## Abstract

### The Resistance Theory of Calvinism in the 16th century

Bae, Joon-Wan

This is an attempt at a reconstruction of resistance theories of the French Calvinists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t a theological perspective on the problem of continuity/discontinuity between resistance theory of Calvin and those of his Huguenot successors.

Previous studies, from the pioneering study of J. W. Allen to recent influential publications of M. Walzer and Q. Skinner, has examined Calvinist resistance theory exclusively in a political perspective. Those historians underestimated the religious identity of Calvinists on the premise that the Calvinist's resistance is a fundamentally political phenomenon. They dealt with the issue of Huguenot's resistance as if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ir religion at all. But I think the resistance of Calvinist contains not only political dimension but also theological dimension. In order to understand it exactly, I would rather focus on their religious and theological position than look through the political eyes.

C. T. McIntire suggested that there are three aspects of reality; historical, structural(or systematic), and ultimate dimension. These three dimensions are related with time, space, and meaning respectively. According to him, taking into account all the three dimension in every stage of investigation is a key to acquire the real historical reality. The ultimate dimension is most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the other dimensions. In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alvinistic resistance discourse, I have examined works of three Huguenots according to three dimension they represent.

First, I treated John Calvin (1509-1564), the most influential among those who affected the resistance discourse of Huguenots. His resistance theory of

'popular magistrates' (*magistratus populares*), which was proposed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paved the way for the resistance discourses of his Huguenot successors. His theory was to restore the divine order in the providence and sovereignty of God. Therefore, his discourse can be titled as 'Resistance in the Providence' or 'Resistance as a Divine Rights.'

Calvin put the resistance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vidence, and provided the direction and meaning of the resistance discourse for his successors. So his resistance discourse revealed the ultimate dimension of Calvinistic resistance theory. His successor made every effort to get connect with him in an attempt to find justification in their resistance to the French absolute monarchy.

Second, I treated Theodore Beza(1519-1605), the direct successor to Calvin in Geneva. He participated in the First French Civil War as a military pastor and led international Calvinism in Geneva after Calvin died. In 1554, before Calvin's death, he expressed indirectly his opinion on resistance theory in *On the Authority of the Magistrates to Punish Heretics (De haereticis a civili magistratu puniendis)*. After the massacre of St. Bartholomew, he presented clearly the principle of resistance in *The Rights of Magistrates (Du droit des magistrats sur leurs sujets)*. He reinterpreted the resistance of Huguenot in the context of the covenant established between God and the Israelite in the Old Testament. Accepting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he transformed the concept of covenant into that of contract. Therefore, his discourse is called 'Resistance as Contractual Right.'

Beza's resistance theory showed us the structural dimension of Huguenot's resistance theory. Concentrating on the contractual relation which justify resistance, he emphasized the meaning of resistance in real life circumstances. Beza put the meaning of resistance theory, which Calvin already had explained, in theoretical formula. In the course of theorizing, he reconstructed the structural dimension of Huguenot's theory of resistance, justified the resistance of Huguenots, and formed the system of resistance discourse. According to him, the right to resist by lesser magistrates and Estate General was granted in the structure of contract.

Third, I treated François Hotman (1524-1590). In *Franco-Gallia*, he traced

back to the history of Gallia before the conquest of Rome and explained the characters of kings and magistrates in Franco-Gallia. This Hotman's project introduced historical dimension to the resistance discourses of Huguenots. His discourse can be titled as 'Resistance as Historical Right' in so far as he searched the right to resist in the real history of France.

Hotman added the ultimate and structural dimensions of Calvin and Beza to the historical dimension of resistance theory. The ultimate meaning of resistance amplified when it settled down in real history. In the course of that settlement, it seems as if he was ideological biased. But the danger of his being ideological-biased arose from the tensions in historical situation. Historical justification necessarily contains the ideological danger in real politics. That is why Hotman seems more political than Calvin and Beza.

The resistance discourse in Calvinism arose due to the 16th century reality simultaneously, from its dimensions, which are ultimate, structural, and historical. If we try to understand the resistance theory of Calvinism only through the political dimension, we lost the real meaning and character of it. Especially,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the resistance theory of these three persons representing each dimensions could more deeply understood when we focus on their theological position and worldview (*Weltanschauung*). The Calvinist approach to politics is fundamentally theological. So I examined the problem of continuity/discontinuity, which have been treated as political context, through the eyes of theological category,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is the most emphasized subject in the later works of Calvin, and influenced on the formation of Calvinistic worldview. It was, of course, influenced by Luther. But Calvin's conception overcame the weakness of Luther, and finally formed Calvinistic religious identity which is distinguished from Lutheran and Anabaptist. Their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covers both 'time' and 'space' in which rule of God prevails. Calvinistic conception of the Kingdom contains both the spatial extension and gradual growth of the Divine realm. Therefore the resistance theory of Calvinism need a new illumination on the theological principle as follows: the gradual growth of God's reign and the presence of His Kingdom.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16세기 칼뱅주의자들의 저항 이론을 새롭게 살펴본 것이다. 특히 저항권에 대한 칼뱅과 그의 위그노 후계자들간의 연속성과 단절성 문제를 신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알렌(J. W. Allen)의 선구적 저작으로부터 왈쩌(M. Walzer)와 스킨너(Q. Skinner)의 최근 저서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칼뱅주의 저항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 시각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칼뱅주의자들의 저항론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현상'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저항론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이차적인 문제로 취급해 버렸다. 다시말해 그들은 칼뱅주의자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환원시킴으로, 칼뱅주의 저항권을 세속적 개념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위그노의 저항권 문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종교적 입장을 고려할 때 더욱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칼 매킨타이어(C. T. McIntire)는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는 길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차원이란 역사적(historical) 차원, 구조적(structural) 차원, 궁극적(ultimate) 차원이다. 역사적 차원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고, 구조적 차원은 '공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궁극적 차원은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그가 볼 때 진정한 역사적 지식은 그 시대가 가지는 이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조명할 때만 가능하다. 또한 그는 궁극적 차원이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의 의미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16세기 칼뱅주의 저항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매킨타이어가 지적한 세 가지 측면에서 칼뱅주의자들의 저항론을 고찰하였다.

제일 먼저 다룬 칼뱅(Jean or John Calvin, 1509-1564)은 위그노의 저항권 문제에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었다. 그가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주장한 '인민의 공직자'에 의한 저항 이론은 그의 후계자들이 저항론을 펼치는데 본격적인 길을 터 주었다. 칼뱅이 취했던

저항 논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새로운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저항론의 특징은 '신적 섭리 안에서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항의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의 후계자들의 저항 담론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의미를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그의 저항론은 추후 벌어지는 위그노 저항론의 궁극적 측면을 지시하고 있다. 이후의 칼뱅주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칼뱅과의 연결 고리를 찾으려 했고, 칼뱅에게서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했으며, 칼뱅에 의해 부여된 종교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절대 군주제에 대한 저항론을 펼쳤다.

두 번째로 다룰 인물은 제네바에서 칼뱅의 후계자로 남았던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이다. 베자는 제1차 위그노 전쟁시 직접 종군목사로 참여하였고, 칼뱅 사후 제네바에서 국제적으로 칼뱅주의자들을 진두 지휘하였다. 그는 이미 칼뱅이 살아있었던 1554년 『이단처벌에 관한 공직자의 권위』(*De haereticis a civili magistratu puniendis, On the Authority of the Magistrates to Punish Heretics*)에서 간접적으로 저항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바 있고, 성 바들로뮤 학살 이후인 1574년 『공직자의 권리와 인민의 의무』(*Du droit des magistrats sur leurs sujets, The Rights of Magistrates*)에서 자신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밝혔다. 그는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 인민간에 세워진 언약(covenant) 관계 속에서 위그노의 저항권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인민 주권의 원리를 도입하여 언약 개념을 계약적 맥락으로 바꾸어 저항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베자의 저항론은 '계약적 권리로서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베자의 저항론은 위그노의 저항론이 담고 있는 구조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저항의 여러 원칙을 담보하고 있는 계약의 문제에 집중해서 이미 칼뱅이 설정한 저항의 의미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부각시켰다. 베자는 칼뱅이 논의한 저항의 의미를 현실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론화시키고 있다. 이론화의 작업 속에서 그는 저항의 정당화와 더불어 저항 담론 자체의 체계를 형성시켰다. 다시말해, 베자는 계약 구조 속에서 공직자나 삼부회가 저항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부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다룰 인물은 프랑수아 오토망(François Hotman, 1524-1590)이다. 오토망의 『프랑코 갈리아』(*Franco-Gallia*)는 로마정복 이전의 갈리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프랑코 갈리아가 성립되던 시기의 왕과 공직자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저서를 통해 그는 위그노의 저항론에 역사적 차원을 도입하고 있다. 오토망의 저항 담론은 프랑스 역사 속에서 인민들의 권리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권리로서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오토망은, 칼뱅이 이미 설정한 궁극적 차원과 베자가 분석한 구조적 차원 위에, 저항권의 역사적 차원을 덧붙이고 있다. 저항권에 대한 궁극적 의미 부여는 그것이 구체적인 역사 현실 속에 자리잡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이 과정에서 오토망은 이데올로기적인 인물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직면했던 이데올로기의 함정은 현실 역사가 가지는 긴장으로 인해서 생긴다. 칼뱅과 베자에 비해서 오토망이 정치적 인물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역사적 정당화는 항상 현실 정치의 이데올로기성에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칼뱅주의에서 저항 담론은 16세기의 현실 속에서 궁극적, 구조적, 역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제기되었다. 만약 정치적 차원에서만 16세기 칼뱅주의 저항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성격을 놓치고 만다. 이 세 사람의 저서 속에 있는 저항 담론의 구조와 그 성격은, 그것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규명될 때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된다. 칼뱅주의자들의 정치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으로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 정치적 맥락에서만 다루어 졌던 연속성과 단절성 문제를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적' 카테고리를 통해 새롭게 분석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칼뱅의 말년 저작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주제였으며, 그것은 향후 칼뱅주의자들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칼뱅주의자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루터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루터를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결국은 재세례파나 루터파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 칼뱅주의자들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칼뱅주의자들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적 확대와 시간적 점진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요컨대 칼뱅주의 저항권은, 하나님의 점진적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는 신학적 원리 속에서 재조명될 때 더욱 적절히 이해된다.

# 目次

I. 머리말 .....	1
II. 칼 뱁: 神的 섭리 안에서의 저항 .....	9
III. 베 자: 契約的 권리로서의 저항 .....	19
IV. 오트망: 歷史的 권리로서의 저항 .....	27
V. 저항권의 연속성과 단절성 .....	35
VI. 맺음말 .....	47
참고문헌 .....	50

# I. 머리말

칼뱅(Jean or John Calvin, 1509-1564)과 그의 후계자들은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쾰링글리(Ulrich Zwingli, 1484-1531)가 이미 시작해 놓은 개혁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개혁운동을 주도했다.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 이후 칼뱅주의는 프랑스 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네델란드, 남서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이미 국제적인 세력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칼뱅주의자들은 유럽 어느 나라에서나 소수파였기 때문에 자연히 급진적인 혁명 세력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칼뱅주의자들은 종교적 자유는 물론이고 자치권마저 획득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므로, 그들의 투쟁에서 저항권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 되었다.

16세기 칼뱅주의자들의 저항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저항의 주체였다. 칼뱅은 폭군에 대한 인민의 저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그는 '인민의 공직자' (*magistratus populares, popular magistrates*)만이 군주의 폭정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sup>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John Knox, 1514-1572)는 폭군에 대해 공직자 뿐 아니라 인민도 무력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칼뱅의 이론을 급진화시켰다. 프랑스 위그노들의 저항론은 저항 주체의 문제에서 칼뱅과 낙스의 중간 지점에 있다. 그들의 저항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인민의 저항권이라기 보다, 군주와 인민을 연결하는 공직자 또는 기관(삼부회)의 저항권이었다.

저항권에 관한 칼뱅과 그의 위그노 후계자들과의 연속성과 단절성 문제는 공직자의 저항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민의 저항도 인정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

1) '인민의 공직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인민의'라고 번역한 '*populares*'는 '민중의', '국민의', '백성의'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저항권의 출처 문제에서 칼뱅 이후 위그노들이 인민주권론적인 경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용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인민의'라고 번역했다. 둘째, '공직자'라고 번역한 '*magistratus*'는 '관리', '관원', '권력자' 등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라틴어 원문의 본래 뜻은 '권력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위그노들의 저항론에서 '*magistratus*'는 인민과 절대군주를 연결하는 사람 혹은 기관(삼부회)를 의미했기 때문에, '공직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지 연속과 단절에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칼뱅의 말년 설교와 주석에 나타난 급진적 표현과, 제1차 위그노 전쟁시 그의 애매모호한 행동에 대한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 칼뱅은 어디에서도 명백하게 군주의 폭정에 대해서 인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년 저술에 등장하는 과격한 표현과 행동은 암묵적으로나마 공직자의 저항을 넘어서 인민의 저항까지 용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칼뱅과 그 후계자들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기에 이르러 칼뱅의 저항권 이론이 적극적 저항으로 선회하였으며, 이점에서 칼뱅과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단절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칼뱅의 견해가 그의 생애에서 시종일관 변화가 없었으며, 따라서 저항권에 관한 칼뱅과 그 후계자들 사이의 연속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후기 칼뱅의 적극적 저항론을 본격적으로 옹호한 사람은 알렌(J. W. Allen)이었다. 그는 칼뱅이 1561년 콜리니(Gaspard de Coligny)에게 쓴 편지에 나타난 몇몇 문구들과 1559년판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 다니엘의 저항을 새롭게 삽입한 사실을 증거로, 저항권에 대한 칼뱅의 견해가 후기에 급진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알렌은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루터, 보댕(Jean Bodin) 등 16세기 정치사상가들을 분석하면서 그들 속에서 칼뱅의 저항권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다.<sup>2)</sup> 그러나 알렌의 연구 이후 칼뱅의 정치 사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칼뱅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므로 저항권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만이 칼뱅의 저항권 문제를 언급하였다. 맥닐(John T. McNeill)은 칼뱅의 정치 사상이 점진적으로 '민주주의적' 경향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았지만, 그의 저항 사상이 후기에 급진화되었다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sup>3)</sup> 이에 반해 킹던(Robert M. Kingdon)은 저항권에 대한 칼뱅의 견해가 루터파의 마그테부르크 신앙고백(Magdeburg *Bekentniss* or Confession)과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의 영향을 받아 후기에 적극적 저항으로 선회하였다고 보았다.<sup>4)</sup> 한스

---

2) J. W. Allen,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n the Sixteenth Century* (London: Methuen & Co Ltd, 1928, rep. 1961), pp. 56-59.

3) John T. McNeill, "The Democratic Element in Calvin's Thought," *Church History* (18: 1948), pp. 153-171.

바론(Hans Baron)은 중립적 입장에서 칼뱅의 정치 사상이 '공화주의적' 경향으로 변해 갔음을 강조하였다.<sup>5)</sup>

칼뱅주의의 저항권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 이후 왈쩌(Michael Walzer)와 스킨너(Quentin Skinner)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중반에 쓰여진 왈쩌의 『성도의 혁명: 급진적 정치의 기원에 관한 연구』(*The Revolution of the Saints: A Study in the Origins of Radical Politics*)는 칼뱅의 사상이 가지는 혁명성을 강조하면서 칼뱅과 그 후계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다루었다.<sup>6)</sup> 그러나 왈쩌의 논의는 정치사상사의 문제보다 신학적 문제에 더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관한 신학적 논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1978년에 출판된 스킨너의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는 칼뱅주의 저항권을 정치사상사의 맥락에서 논의한 가장 비중있는 저서였다. 그는 근대 정치사상에서 루터파는 절대주의를, 가톨릭은 입헌주의를, 칼뱅주의는 혁명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그는 칼뱅의 말년 저술인 사무엘 上 설교와 다니엘서 주석, 그리고 사도행전 주석 등에 나타나는 반군주제적인 표현과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첨가된 다니엘의 저항을 예로 들어 칼뱅이 후기에 적극적 저항론으로 선회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이러한 스킨너의 주장은 1980년대 이후 야르디니(Myriam Yardeni)와<sup>8)</sup> 한콕(Ralph Hancock)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었고,<sup>9)</sup> 바우스마(William Bouwsma)와 맥그래스(Alister McGrath)의

---

4) Robert M. Kingdon, "The First Expression of Theodore Beza's Political Ideas,"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6: 1955), pp. 88-100.

5) Hans Baron, "Calvinist Republicanism and Its Historical Roots," *Church History* (8: 1939), pp. 30-42.

6) Michael Walzer,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A Study in the Origins of Radical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5); *Exodus and R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1985).

7) Quentin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8), p. 214, pp. 219-221, pp. 230-233.

8) Myriam Yardeni, "French Calvinist Political Thought, 1534-1715," in *International Calvinism 1541-1725*, ed. by Menna Prestwich (Oxford: Clarendon Press, 1985), pp. 315-337.

9) Ralph C. Hancock, *Calvin and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s*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9).

칼뱅 전기에서도 반영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혁명론'에 대한 열기가 식은 후 1990년대 들어서서는 후기 칼뱅의 급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랄프 키인(Ralph Keen)은 지금까지 후기 칼뱅이 적극적 저항으로 선회하였다고 주장하던 학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사무엘 上 설교, 다니엘서 주석, 사도행전 주석, 베자와 마그데부르크 신앙고백의 문제 전반을 다루면서 칼뱅과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 저항권에 관한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특히 키인은 칼뱅 말년 저작의 반군주제인 표현이 초기 저작과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스키너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sup>11)</sup> 스프록슨(Judy Sproxtton)은 프랑스 내란으로부터 영국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무력 사용 문제를 다루면서 후기 칼뱅의 급진화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2)</sup>

알렌의 선구적인 저작으로부터 최근의 저항권 논의에 큰 영향을 끼친 왈쩌와 스키너의 저서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론을 주로 정치적 측면에서 다루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왈쩌는 칼뱅주의 저항권의 근본적 동기를 심리학에 기초한 정치적 행위에서 찾고 있다.<sup>13)</sup> 그는 칼뱅주의 저항론을 종교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무질서에 대한 대응에서 일어난 억압과 통제의 감각이 고도로 발전한 정치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칼뱅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망명 지식인[칼뱅]은 제네바의 정치에 몰두했다. ... 그는 신학자도 철학자도 아니었다. 다만 이데올로기의 신봉자였다"라고 평하였다.<sup>14)</sup> 스키너는 칼뱅주의를 정치적 현상으로 규명한 왈쩌의 전제를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면서 칼뱅주의 저항권을 세속적 개념으로만 취급

---

10)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 Oxford Univ. Press, 1988), pp. 207-209; Alister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pp. 186-187.

11) Ralph Keen, "The Limits of Power and Obedience in the Later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 1992), pp. 252-276.

12) Judy Sproxtton, *Violence and Religion: Attitudes towards Militancy in the French Civil Wars and the English Revolu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5), pp. 4-20.

13) Walzer,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p. 312.; Carlos M. N. Eire, *War Against the Idols: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6), p. 304.

14) Walzer,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p. 27.

하고 있다.<sup>15)</sup> 그는 칼뱅주의자들의 저항 담론이 가지는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그것의 뿌리를 루터파의 저항 담론과 가톨릭의 입헌주의 사상에서 찾고 있다.<sup>16)</sup> 그 과정에서 그는 칼뱅주의 저항 담론을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간주한다.<sup>17)</sup> 이후의 논의는 칼뱅주의 저항론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현상을 반영한다는 왈쩌와 스키너의 전제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칼뱅주의 저항론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현상이라는 왈쩌와 스키너의 전제가 과연 옳은가? 16세기 칼뱅주의자들의 세계관과 종교적 정체성(religious identity)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그들의 저항권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16세기의 저항권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로 이 당시 새롭게 등장하던 국가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국가들이 봉건국가에서 절대 군주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sup>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저항권 문제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 즉 신앙의 자유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근대적 입헌주의가 확립되던 과정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은 16세기 저항권 논의의 중요한 변수였다. 이점은 칼뱅주의자들의 저항권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차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관련된 신학적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위그노들의 저항론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일차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 속에

15) Eire, *War Against the Idols*, p. 305.

16) 스키너는 근대 혁명이론의 뿌리를 찾으려 하면서 왈쩌의 논의가 가지는 심리학적 측면을 뛰어 넘고 있다. 그는 16세기 저항권의 근원을 루터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루터파의 저항권 이론이 칼뱅주의자들에게서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칼뱅주의 저항권을 전적으로 정치적, 세속적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저항권에 관한) 칼뱅의 주장은 정치적 권위에 대한 논쟁에 최초로 세속적이고 입헌주의적인 요소를 끌어들이게 했다.”(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p. 233.)

17) Eire, *War Against the Idols*, pp. 306-307.

18) Hans Scholl, *Reformation und Politik* (Stuttgart: W. Kohlhammer, 1976)/황정욱 옮김, 『종교개혁과 정치』 (기독교문사, 1993), p. 120. 앞으로 표기될 페이지는 번역본의 것임.

서 찾아야 한다. 이 말은 칼뱅주의 저항권을 정치적 맥락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칼뱅주의자들의 저항론에 신학적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칼뱅주의 저항론의 정치적 측면 또한 그들의 신학적 입장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왈짜와 스키너를 비롯한 기존의 학자들은 16세기 위그노의 정치화의 맥락에서만 저항권 문제를 다룸으로써, 위그노의 저항론에 담겨져 있는 종교적 정체성을 이차적인 문제로 취급해 버렸다. 그러나 위그노의 저항권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입장을 고려할 때 더욱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칼뱅주의 전통에 서있는 역사가 칼 매킨타이어(C. T. McIntire)는 역사적 실체(historical reality)에 접근하는 길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차원이란 역사적(historical) 차원, 구조적(structural) 차원, 궁극적(ultimate) 차원이다. 역사적 차원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고, 구조적 차원은 '공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궁극적 차원은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그가 볼 때 진정한 역사적 지식은 그 시대가 가지는 이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조명할 때만 가능하다. 또한 그는 궁극적 차원이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의 의미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sup>19)</sup>

매킨타이어의 지적처럼, 16세기 칼뱅주의 저항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필자가 제일 먼저 다룬 칼뱅은 위그노의 저항권 문제에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다. 그는 박해받던 프랑스 위그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무력 저항을 전혀 언급한 바 없지만, 실제로 1차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뒤에서 위그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었다. 또한 그는 왕실 혈통이었던 나바르의 앙리(Henry of Navarre)를 통해서 위그노 세력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강요』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일관되게 주장된 '인민의 공적자'에 의한 저항 이론은 그의 후계자들의 저항론에 본격적인 길을 터 주었다.<sup>20)</sup>

19) C. T. McIntire, "Historical Study and Historical Dimension of Our World," in *Histor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ed. by C. T. McIntire & Ronald A. Well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4), pp. 18-22.

20)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판)의 영역본으로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칼뱅이 취했던 저항 논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새로운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향후 칼뱅주의자들의 저항론이 가지는 궁극적 측면을 지시해 주었다.

두 번째로 다룰 인물은 제네바에서 칼뱅의 후계자로 남았던 테오도르 베자이다. 베자는 제1차 위그노 전쟁시 직접 종군목사로 참여하였고, 칼뱅 사후 제네바에서 국제적으로 칼뱅주의자들을 진두 지휘하였다. 그는 이미 칼뱅이 살아있었던 1554년 『이단 처벌에 관한 공직자의 권위』 (*De haereticis a civili magistratu puniendis, On the Authority of the Magistrates to Punish Heretics*)<sup>21)</sup> 에서 간접적으로 저항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바 있고, 성 바들로뮤 학살 이후인 1574년 『공직자의 권리와 인민의 의무』 (*Du droit des magistrats sur leurs sujets, The Rights of Magistrates*)<sup>22)</sup>에서 자신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밝혔다. 그는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 인간에 세워진 언약(covenant) 관계 속에서 위그노의 저항권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베자의 저항론은 위그노의 저항론이 담고 있는 구조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다룰 인물은 프랑수아 오토망(François Hotman, 1524-1590)이다. 오토망의 『프랑코 갈리아』 (*Franco-Gallia*)<sup>23)</sup>는 로마정복 이전의 갈리아 역사로 거슬러 올라

---

F. L. Battle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5, rep., 1989)을 참조했음. 앞으로 초판에 대한 표기는 *Institutes*(1536), (장), (절) 순으로 표기함; 최종판(1559년판)의 경우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F. L. Battles & 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를 참조했음. 최종판에 대한 표기는 간단히 *Institutes*(1559), (권), (장), (절) 순으로 표기함; 『기독교 강요』의 정치 사상(XI권 20절)만 따로 영역한 *Luther and Calvin on Secular Authority* tr. & ed. by Harro Höpfl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rep. 1993), pp. 45-86을 동시에 참조함.

21) 『이단처벌에 관한 공직자의 권위』의 영역본인 *On the Authority of the Magistrates to Punish Heretics* 는 *Christianity and Revolution: Radical Testimonies 1520-1650*, ed. by Lowell H. Zuck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75), pp. 142-144의 것을 참조했음. 앞으로 표기할 페이지는 본서의 페이지임.

22) 『공직자의 권리와 인민의 의무』의 영역본인 *Rights of Magistrates* 는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Three Treatises by Hotman, Beza, & Morray*, tr. & ed. by Julian Franklin (New York: Pegasus, 1969), pp. 97-135의 것을 참조했음. 앞으로 표기할 페이지는 본서의 페이지임.

23) 『프랑코 갈리아』의 영역본인 *Franco-Gallia* 는 *Ibid.*, pp. 47-96 의 것을 참조했음. 앞

가, 프랑코 갈리아가 성립되던 시기의 왕과 공직자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프랑코 갈리아』는 당시 위그노의 저항 담론에 역사적 차원을 새롭게 도입한 획기적인 저서였다. 이 저서는 출판 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며 종교 전쟁시 위그노의 저항 담론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트망의 저항 담론은 프랑스 역사 속에서 인민들의 권리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권리로서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사람의 저서 속에 있는 저항 담론의 구조와 그 성격은, 그것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규명될 때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 정치적 측면에서만 다루어 졌던 연속성과 단절성 문제를 ‘하나님 나라’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새롭게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는 칼뱅의 말년 저작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주제였으며, 그것은 향후 칼뱅주의자들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칼뱅주의자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루터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루터를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결국은 재세례파나 루터파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만들게 되었다.

## II. 칼뱅: 神的 섭리 안에서의 저항

16세기에 국가를 도덕적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권력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예컨대 에라스무스는 국가를 '도덕적 기관'으로 보았고,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초도덕적인 단순한 '권력 기관'으로 보았다. 개혁자들의 정치사상은 바로 에라스무스와 마키아벨리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루터가 마키아벨리 쪽에 좀 더 가깝다면, 칼뱅은 에라스무스 쪽에 더 가깝다. 농민전쟁시 루터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군주들이 칼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루터는 국가를 도덕적 기관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에라스무스와 비슷하지만, 인간의 죄성(罪性) 강조한 나머지 반란을 무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마키아벨리에 더 가까웠다.<sup>24)</sup> 칼뱅은 인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루터보다 덜 비관적이었다. 루터가 인간의 죄성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면, 칼뱅은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와 주권을 더 강조했다.

칼뱅은 초기부터 자신의 신학 및 정치사상을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찾고 있었다. 1535년 올리베땅(Olivétan) 신약 성서 서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는 "모든 왕과 나라들은 겸손하게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섬겨야 하며", "왕들과 군주들과 모든 인민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하나님의 주권, 섭리, 영광은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선포되었다. 창공에서부터 땅속 깊은 곳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전달자며 증인이었다.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가 창조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다고 보았다.<sup>26)</sup>

24) Roland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Beacon Press, 1952)/홍치모·이훈영 옮김, 『16세기 종교개혁』(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pp. 208-209. 앞으로 표기될 페이지는 번역본의 것임.

25) "Preface to Olivétan's New Testament", in *Calvin Commentari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3, tr. & ed. by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p. 71.

26) François 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칼뱅이 정치 사상을 처음으로 표현한 것은 프랑스에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기에 썼던 『기독교 강요』 1536년판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국가를 전복시키는 폭도들이 아니라 왕에게 복종하는 인민이라는 점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왕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뱅은 당시 급진적인 재세례파와 보수적인 로마 가톨릭교도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복종과 존경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의 신앙과 자유도 강조하고 있었다.<sup>27)</sup>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동시에 무정부주의적인 극단을 피하려 한 칼뱅의 이러한 시도는 영적인 통치와 세속적 통치 사이에 화해를 이루려는 것이었다.

칼뱅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참된 질서의 회복을 열망했다.<sup>28)</sup> 이 질서는 영적인 질서뿐 아니라 자연적인 질서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적 질서와 자연적인 질서 사이에는 참된 일치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연적 질서를 따르는 것을 단순히 성도의 이차적 의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기독교적 경건과 복음의 본질적 요소였으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었다.<sup>29)</sup> 그래서 그는 이러한 참된 질서를 훼손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1544년에 저술한 『재세례파에 반대하여』(Against the Anabaptist)는 자연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재세례파에 대한 반박이며, 1545년의 『방종파에 반대하여』(Against the Libertines)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려는 방종파에 대한 공격이었다.<sup>30)</sup> 그러므로 칼뱅은 참된 질서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에만 가능했기에<sup>31)</sup> 그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절대 군주들에 대해서

---

Philip Mairet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7), p. 161.

27) John Witte Jr., "Moderate Religious Lib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31: 1996), p. 363.

28) Bouwsma, *John Calvin*, p. 86 ff.

29) *Institutes*(1559), IV, 20. 9.;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1959)/나용화 옮김,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pp. 182-186.

30) 각각의 원제목은 다음과 같다. *Brieve instruction pour armer tous bons fideles contre les erreure de la secte commune des Anabaptistes; Contre le secte phantastique et furieuse des Libertins que se nomment Spirituelz.*

31) *Institutes* (1536), 6, 1.

비판하였다. 그래서 칼뱅은 대담하게 “여호와께서는 거만한 왕들의 피비린내 나는 흙을 꺾으시며 용납할 수 없는 정부를 전복시키신다. 군주들은 듣고 떨라”라고 했다.<sup>32)</sup>

칼뱅은 영적 통치와 세속적 통치를 구별하고 있다. 그는 전자를 하나님 나라라 부르고 후자를 세속적 나라라고 불렀는데 이 둘은 각각 다른 법의 지배를 받는 세계였다.<sup>33)</sup> 『기독교 강요』 1559판은 영적 통치나 세속적 통치중 하나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양극단에 대한 경고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다. “한쪽에서는 미친 야만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도를 전복하려고 날뛰고 있는 동시에 또 한 편에서는 군주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군주의 권력을 과장해서 하나님 자신의 통치에 대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독을 다 억제하지 않으면 순수한 믿음도 사라질 것이다.”<sup>34)</sup> 양극단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영적 통치와 세속적 통치, 영적인 삶과 정치적 삶, 통치에 대한 복종의 요소와 불복종의 요소를 화해시키려는 칼뱅의 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sup>35)</sup>

칼뱅이 볼 때 국가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한 기관이었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제도이자 신자들의 단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하나님의 제도이자 시민들의 단체라고 주장하였다.<sup>36)</sup> 그는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서 유래한 일”이라고 단언한다.<sup>37)</sup> 루터는 정부를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보았다. 그러나 칼뱅은 정부를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일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았다. 정부가 하는 일은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인간 상호간의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32) *Institutes*(1559), IV, 20, 31; *Institutes* (1536), 6, 55.

33) *Institutes*(1536), 6, 13.

34) *Institutes*(1559), IV, 20, 1.

35) John Witte Jr., "Moderate Religious Lib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p. 374.

36) Emile Doumergue, *Le Caractère de Calvin: L'Homme, Le Systeme, L'Église, L'État* (La Cause, Neuilly, France, 1931)/ 이오갑 옮김,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대한기독교서회, 1995), p. 131.

37) *Institutes*(1559), IV, 20, 4.

정직과 겸약의 덕을 유지하는데 있다. 요컨대 정부의 기능은 “인간성의 보존”에 있으므로, 정부를 폐지하는 것은 “인간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sup>38)</sup> “야만적 행위”인 것이다.<sup>39)</sup>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 받은자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칼뱅은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악한 사람을 응징한다.<sup>40)</sup> 그와 마찬가지로 통치자들은 모든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속에 있는 자비와 공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다.<sup>41)</sup>

칼뱅은 통치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민은 무조건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볼 때 인민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며,<sup>42)</sup> 통치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은 공적인 문제에 간섭하거나 공직자들의 직분을 침해해서도 안되고 정치적인 것에 손을 대서도 안된다는 것이다.<sup>43)</sup>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직무에 충실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한 직무를 소홀히 하여 폭정을 행하는 악한 군주일 경우에 인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칼뱅은 폭군의 경우라도 인민은 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공평하고 성실하게 직책을 다하는 군주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든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비록 군주로서의 직책을 조금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주께서는 통치자들의 직책을 인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부여한 최고의 은사(gift)라고 증거하신다. 또한 통치자들의 권한에 한계를 정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통치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주께 권위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신다.<sup>44)</sup>

---

38) *Institutes*(1559), IV, 20, 2.

39) *Institutes*(1559), IV, 20, 3.

40) *Institutes*(1559), IV, 20, 4.

41) *Institutes*(1559), IV, 20, 6.

42) *Institutes*(1559), IV, 20, 22.

43) *Institutes*(1559), IV, 20, 23.

칼뱅은 인민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복종에 관해서는 한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그것은 통치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될 때, 인민들은 그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또 복종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 강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통치자들의 권위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복종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야 한다. 아니 예외라기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즉 우리는 모든 왕들도 마땅히 복종해야 할 분에게 불순종해서는 안된다. 왕들의 모든 명령은 그들의 명령앞에 비켜서야 하며 그들의 권력도 그들의 위엄 앞에서는 굴복해야 한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통치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분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는가?<sup>45)</sup>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예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 언급하였다. 칼뱅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최우선으로 둔 것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위를 상대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통치자의 직무가 신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 다니엘이 왕의 불경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은 예가 새롭게 첨가된 것은 이러한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최우선의 복종이 군주들의 폭정에 인민이 저항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는 “집권자들이 가장 무가치한 사람들이며 악행을 다 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더럽힌다 하더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의 지극히 중대한 명령이므로 존중할 만한 위엄이 가득”하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난폭한 독재를 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인민들은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고통을 참으라”고 주장한다.<sup>46)</sup> 칼뱅은 분명히 폭정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칼뱅에 의하면 사사로운 개인은 통치자에게 저항해서는 안되지만 ‘인민의

44) *Institutes*(1559), IV, 20, 25.

45) *Institutes*(1559), IV, 20, 32.

46) *Institutes*(1559), IV, 20, 31.

공직자는 통치자의 폭정에 저항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사사로운 시민에 대해서만 말했다. 그러나 만일 지금이라도 왕들의 전횡을 억제하기 위해 임명된 인민의 공직자들(예를 들어 고대 스파르타의 왕들에 대항한 행정관들(ephor), 로마 집정관에 대항한 호민관(tribune), 아테네의 원로원에 대항한 지방장관(demarch), 그리고 아마도 현재 삼부회가 소집되었을 때 행사하는 권한 같은 것)이 있다면 나는 그들이 왕들의 심한 방종에 대하여 그 직무대로 저항하는 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연약한 인민에 대한 군주들의 폭정을 못본체한다면 나는 그들의 이러한 위선을 극악한 배신 행위라고 선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로 임명되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배신하는 부정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sup>47)</sup>

이 구절은 이후 칼뱅주의 저항권 이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최종판까지 줄곧 인민의 공직자에 의한 저항권을 인정하면서, 한번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다. 단지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추정되는 개연적 행동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그노는 물론 크롬웰에 이르는 청교도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무력 항쟁이나 혁명의 근거를 ‘인민의 공직자’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면 칼뱅이 말하는 ‘인민의 공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왕들의 심한 방종에 저항하고, 인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칼뱅이 인민의 공직자의 예로 스파르타의 행정관(ephor), 로마의 호민관(tribune)을 들고 있는 것은 쾰링의 영향 때문이다. 쾰링은 『목회자』(Der Hirt)에서, “스파르타에는 감독관이 있고, 로마에는 호민관이, 독일의 도시에는 길드가 있어 통치자들을 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세워 인민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다.<sup>48)</sup> 맥닐은 그들이 매년 시민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인민의 공직자는 칼뱅 사상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규정하는 한 부분이라고 보았다.<sup>49)</sup> 그는 칼뱅이 인

47) *Institutes*(1559), IV, 20, 31.

48) McNeill, "The Democratic Element in Calvin's Thought," p. 163. 각주 참조;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p. 231.

49) *Institutes*(1559), IV, 20, 31, 각주 (54); McNeill, "The Democratic Element in Calvin's

민의 공직자에 대한 프랑스의 실례로 삼부회를 언급한 것과, 이후 위그노의 저항 담론 특징이 '삼부회를 소집하라'는 것임을 감안하여, 인민의 공직자를 삼부회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요컨대 칼뱅이 저항의 주체로 내세운 인민의 공직자는 바로 군주와 인민 사이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를 보좌하는 국가의 공직자 혹은 그에 준하는 입헌적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다.

대체로 칼뱅의 '인민의 공직자'는 부처(Martin Butzer or Bucer, 1491-1551)의 『四福音書 강해』(*Explications of the Four Gospels*)와 『士師記 주석』(*Commentaries on the Book of Judges*)에 등장하는 '하위 공직자'(lesser magistrate)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sup>50)</sup> 한스 바론의 주장이 대표적 예이다.<sup>51)</sup> 로버트 킹던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이 용어가 삼부회와 같이 인민의 대표일 수도 있으며, 나바르의 앙리와 같은 혈연적 세습 군주일 수도 있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sup>52)</sup>

스키너는 인민의 공직자가 루터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칼뱅이 루터파의 하위 공직자 개념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인민의 공직자라는 용어는 "왕들의 전횡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명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위 공직자 이외에도 저항의 새로운 주체가 함축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저항 주체의 권위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칼뱅이 루터파 처럼 '하위 공직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인민의 공직자'라고 쓴 것에 다음과 같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부처나 그의 동료들이 하위 공직자라고 쓴 것은 공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칼뱅이 인민의 공직자라고 쓴 것은,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것 외에도 그들이 자신을 선출한 인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는 점을 동시에 말해준다."<sup>53)</sup> 따라서 스키너는 공직자의 저항 근거를 칼뱅이 하나님과 인민, 양쪽에 출처

---

Thought," p. 163 f.

50)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p. 207; Sproxtton, *Violence and Religion*, p. 15.

51) Baron, "Calvinist Republicanism and Its Historical Roots," pp. 38-39.

52) Robert M. Kingdon, "The Political Resistance of the Calvinists in France and Low Countries," *Church History* (27: 1958), pp. 227-228.

53)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pp. 230-233.

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칼뱅의 저항 사상이 루터파, 특히 부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기 이전인 1534년부터 부처와 서신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1538년부터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체류했던 기간은 그가 부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칼뱅에 대한 루터파의 영향력을 단순히 정치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이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킹턴이나 스키너는 후기 칼뱅의 정치 사상이 루터파의 영향과 프랑스 국내 정치의 긴박함으로 인해 급진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민의 공직자’가 이미 『기독교 강요』 1536년판부터 등장한다는 사실은, 칼뱅의 저항권 사상이 1550년대 이후 급박한 프랑스 국내 상황이나 루터파의 일방적인 영향에 의해서 급조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칼뱅에 대한 부처의 영향은 정치 사상 뿐 아니라 신학 사상 전반에 걸쳐 있다.

칼뱅의 ‘인민의 공직자’ 개념에서 인민 주권론을 도출한 스키너의 담대함은 바로 그가 가진 정치적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칼뱅은 그 어디에서도 공직자가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인민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칼뱅이 볼 때 인민의 공직자가 저항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유한 주권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sup>54)</sup> 그는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부여한 통치권(다스림)을 하나의 ‘은사’(gift)로 보고 있다.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부여했는데, 특히 다스림의 은사를 통치자들에게 주었다.<sup>55)</sup> 이러한 다양한 은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가지는 질서와 조화가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다양한 권위를 통해서 자신의 섭리가 가지는 질서와 조화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해 나간다.

칼뱅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다. 그것은 절대 군주이건 하위 공직자이건 상관없이 위로 부터 하나님이 부여한 은사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스림의 권위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함과 박애와 정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sup>56)</sup> 그 권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

54)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MI: Eerdmans, 1931 rep., 1981), p. 90.

55) *Institutes*(1559), IV, 20, 4.

56) *Institutes*(1559), IV, 20, 6.

드러낼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권위가 하나님의 섭리에 위반되면 '다른' 권위들은 그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저항권은 인민의 주권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 부여된 주권(sphere sovereignty)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다고 보아야 한다.

칼뱅의 저항 담론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인간 사회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변화되며, 심지어 돌발적인 혁명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sup>57)</sup> 그러나 칼뱅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정치 사상이 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다투는 두 왕국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칼뱅이 루터와 구별되는 것은 정치적 영역을 대하는 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희망적이라는 점에 있다. 칼뱅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만물을 다스리는 질서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sup>58)</sup> 비록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심각한 왜곡의 요소가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창조 섭리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창조섭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redemption)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칼뱅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물의 구원(recreation)은 바로 재창조(re-creation)와 회복(restoration)를 의미한다.<sup>59)</sup> 칼뱅이 국가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직자의 저항권은 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와 타락의 요소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화해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칼뱅은 재창조의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적극성과 점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already) 임하였지만, 그것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으며 '아직'(not yet)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칼뱅의 정치 사상과 그의 행동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러한 긴

---

57) *Institutes*(1559), I, 17, 1.; *Wendel, Calvin*, p. 181,

58)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pp. 191-192.

59) Albert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 Mich.: Eerdmans, 1985), pp. 9-11, p. 57.

장은 칼뱅의 생애 말년에 잘 나타한다. 앙리2세가 사망한 후 위그노에 적대적인 기즈(Guise)가문이 실권을 장악하자 칼뱅은 부르봉家の 나바르의 앙리에게 모후(母后)인 케더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에게 공동 섭정권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의 제1차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그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그들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행동은 저항과 복종, 이론과 실천, 현실과 원칙 사이에 있는 칼뱅의 긴장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다. '아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그의 긴장은 정치적 문제라기 보다는 종교적 정체성과 관련된 긴장이었다.

### III. 베자: 契約的 권리로서의 저항

베자가 최초로 저항권 문제를 표현한 것은 1554년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쓴 『이단처벌에 관한 공직자의 권위』에서였다. 이 당시 카스텔리오가 칼뱅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처형을 공공연히 비난하였을 때, 베자는 이 저서를 통해서 칼뱅의 입장을 변호하였다. 여기서 그는 루터파의 마그데부르크 신앙고백을 실례로 들면서 종교적인 문제에서 상위 기관이 잘못 처리하였을 때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가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성 바돌로뮤 학살 이후 1574년에 그는 『공직자의 권리와 인민의 의무』에서 저항권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구약 성서의 언약 사상을 인민 주권론에 입각한 계약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자신의 저항 담론을 전개하였다.

칼뱅이 1536년에 인민의 공직자에 의한 저항을 언급하였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공직자의 저항 문제를 제기 한 것은 독일의 루터파였다. 루터파에서 하위 공직자의 저항권이 제기된 것은 슈말칼텐 전쟁 이전인 1530년 전후였다.<sup>60)</sup> 1547년 뮐베르크 전투 패배 이후 루터파들은 궁지에 몰렸고, 칼 5세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화해 시키기 위해 아우구스부르크 잠정안(Augsburg Interim)을 선포하였다. 이 안은 평신도에게도 잔을 주고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등 교황의 권력을 축소 시키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가톨릭적이었다. 따라서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루터파의 본거지 마그데부르크에서 갈루스(Nicholas Gallus), 일리리쿠스(Matthias Flacius Illyricus), 암스도르프(Nicholas von Amsdorf)와 같은 정통 루터파(Gnesio-Lutherans)들은 칼 황제의 잠정안을 모두 거부하였다. 갈루스와 그의 동료들은 1550년 마그데부르크 신앙고백을 통해 황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저항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인민들의 삶, 자유,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상위 권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반드시 저항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1)</sup> 마그데부르크 신앙고백은 저항권에 대한 개신교도들의 최초의 공식화된

60)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p. 206 ff

61) Zuck, *Christianity and Revolution*, pp. 136-137.

선언이었다. 이러한 저항의 원칙은 루터파가 합법적으로 공인된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회의 이후에는 강력하게 제기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그테부르크 신앙고백에서 제기된 저항의 문제는 아직 신앙의 자유를 공인 받지 못한 칼뱅주의자들에게 새롭게 제기되었다. 특히 제네바에서 국제 정치에 익숙했던 베지는 마그테부르크 신앙고백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sup>62)</sup>

성 바돌로뮤 학살 이전에 쓰여진 베지의 『이단처벌에 관한 공직자의 권위』는 저항권 자체보다, 공직자의 의무와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베지가 이 저서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은 공직자에게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카스텔리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처형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베지는 공직자를 “시민들의 공적인 동의에 의해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내세운 사람”이라고 보았다. 평화의 유지는 법의 준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법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사람이다.<sup>63)</sup> 베지는 공직자의 역할을 세속적 영역과 성스러운 영역,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까지 확대시키고, 공직자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였다.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논한 다음 베지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군주들이 잔인함이나 무지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거슬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라고 묻는다. 먼저 그는 “모든 교회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피신하여 생명을 부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들의 저항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위 공직자의 경우 가능한 한 신중과 절제로 그러면서도 일관성있고 지혜롭게,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시켜야 한다. 우리 시대에는 엘베에 있는 도시 마그테부르크에서 이러한 실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 몇몇 군주들이 자신의 직무를 남용할 때, 하나님이 세운 기독교 공직자들이 불신자나 이단자들의 외적 폭력에 대항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가장 유용하고 필수적인 방어수단을 빼앗는 자이다.<sup>64)</sup>

62)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p. 212.

63) *On the Authority of the Magistrates to Punish Heretics*, p. 144.

64) *On the Authority of the Magistrates to Punish Heretics*, pp. 144-145.

베자는 이 저서에서 정부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한계를 정의(定義)하였고, 공직자가 이단을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저서는 저항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이라기 보다 공직자들이 이단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저서는 베자가 마그데부르크 신앙고백을 실례로 들면서 공직자의 저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최초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sup>65)</sup>

베자가 본격적으로 저항권에 대한 포문을 열게 된 것은 1560년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던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1562년 바시 학살 사건으로 인해 당시 기도와 포교에만 전념했던 위그노들은 군사적인 저항으로 맞섰고, 이 시기에 베자는 종군 목사로 제네바에서 파견되었다.<sup>66)</sup> 1572년 성 바들로뮤 학살 사건은 위그노들의 무력 저항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던 사건이었다. 이후 위그노의 저항 담론은 '권리'의 차원에서 '의무'의 차원으로 급진화되었다.<sup>67)</sup>

『공직자의 권리와 인민의 의무』는 1574년에 리용에서 불어로 먼저 발행되었다가 1576년에 라틴어로 번역되었다.<sup>68)</sup> 이 저서에서 베자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명령을 하거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위 공직자'나 '삼부회'가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약 성서의 언약(covenat) 사상에 인민 주권론을 가미하면서, 그는 통치자의 직무, 권위, 인민에 대한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제목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이 저서는 루터파의 마그데부르크 신앙고백에서 제기된 문제를 당시 프랑스의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한 것이었다.<sup>69)</sup> 10개의 논리 정연한 질문과 답변에서 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다음 두가지 문제로 귀착된다.<sup>70)</sup> 첫 번째는 저항의 근거와 관련된 논의로, 최고 통치자와 하위 공직자 모두를 포

65) Kingdon, "The First Expression of Theodore Beza's Political Ideas," pp. 92-94.

66) Menna Prestwich, "Calvinism in France, 1555-1629," in *International Calvinism 1541-1715*, ed. by Menna Prestwich (Oxford: Clarendon Press, 1985), pp. 73-74.

67) Yardeni, "French Calvinist Political Thought, 1534-1715," p. 319.

68) Franklin,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pp. 98-99.

69) 부제를 포함한 불어 원제목은 보면 분명해 진다. *Du Droit des Magistrats sur les Subjects. Traitté Tres-necessaire en ce Temps, pour Advertir de Leur Devoir, Tant les Magistrats que les Subjects: Publiée par Ceux de Magdebourg, l'an MDL; et Maintenant Reveu et Augumenté de Plusieurs Raisons et Exemples.*

70) 10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I)하나님은 물론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해야만

합한 공직자의 권위와 인민이 복종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는, 폭군에 대하여 하위 공직자와 인민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되어 있다.

베지는 저항의 근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에 두고 있다. 그의 저서는 “하나님 뿐 아니라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영원하고 불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뿐이므로, 공직자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할 때만 복종해야 한다”고 답한다. “공직자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명령할 경우,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를 거절” 해야하고, “만약 폭군이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폭군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만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71)</sup>

그러나 베자에게 있어 저항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동료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이다. 베지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저항의 근거를 찾고 있다. 먼저 그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서 금하는 불신앙적인 명령”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동료 인간에게 취해야 할 자비를 무시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는 사악한 명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선언한다.<sup>72)</sup> 칼뱅의 저항 담론에서 공직자의 저항 근거는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여(distribution)받은 권위였다. 그러나 베지는 저항의 근거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동시에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저항 주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칼뱅과 달리 베지는 폭

---

하는가? (II) 인민은 어느 정도까지 공직자의 명령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III) 공직자에 대한 불복종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 (IV) 하위 공직자에게 피해입은 인민은 어떻게 처신 해야 하는가? (V) 상위공직자에 대한 저항은 항상 불법적이고 선동적인 것인가? (VI) 폭군으로 전락한 합법적인 통치자에 대해서 인민은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가? (VII) 폭군이 삼부회를 열지 못하게 방해할 경우 어떤 처방이 가능한가? (VIII)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 군주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가? (IX) 인민은 그들의 군주들과 협상할 수 있는가? (X) 종교적 박해에 저항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71) *Rights of Magistrates*, p. 102.

72) *Rights of Magistrates*, p. 101.

군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정통성이 전혀 없는 권력 찬탈자이고, 다른 하나는 정통성이 있기는 하지만 권력을 남용하는 군주이다. 칼뱅은 정통성이 있건 없건 통치자의 폭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공직자에게만 있음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베지는 통치자가 폭군일 경우 공직자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그 폭군이 권력 찬탈자일 경우 인민들의 저항권도 인정하였다.

베지는 권력 찬탈자에 대해 권위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의무가 하위 공직자와 인민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다. “누군가가 자격이 없으면서도 통치권을 찬탈하려 하거나, 이미 통치권을 찬탈해 버렸을 경우 먼저 인민들은 합법적인 공직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공의 적은 공적 권위와 인민들의 동의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sup>73)</sup> 만약 인민들이 합법적인 공직자들에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들이 묵인할 경우에는 인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찬탈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직자들이 일부러 묵인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각각의 사사로운 시민들은 자기 나라의 합법적인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법을 어기면서 통치권을 찬탈하려고 하거나 이미 찬탈하였기 때문에 권위가 불법적인 사람에게 저항해야 한다.<sup>7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지는 권력 찬탈자가 구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베지는 권력찬탈로 인한 자격의 문제가 인민들의 합법적인 동의를 통해서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sup>75)</sup>

권력 찬탈자에 대해서는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지만 베지는 합법적인 통치자가 폭군으로 전락한 경우에는 인민이 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sup>76)</sup> 정통성 있는 폭군에게 저항할 수 있는 주체는 하위 공직자나 삼부회였다. 하위 공직자와 삼부회는 폭군으로부터 자기 관할하에 있는 인민들을 보호해야 한다.<sup>77)</sup>

---

73) *Rights of Magistrates*, pp. 106-107.

74) *Rights of Magistrates*, p. 107.

75) *Rights of Magistrates*, p. 107.

76) *Rights of Magistrates*, pp. 108-110.

77) *Rights of Magistrates*, p. 112.

따라서, 만약 그들이 법과 자신이 약속한 조건들에서 떠나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악명높은 폭군이 되었을 때 하위 공직자들은 극악한 폭군에게 저항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자들을 부양할 권리가 있다는 단서하에서, 통치권은 왕과 다른 공직자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그러한 권위가 부여된 삼부회나 그와 유사한 기구들은 좋은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저항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저항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폭군을 범죄행위에 따라서 처벌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폭동이나 반란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하나님과 조국에 대해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sup>78)</sup>

베자가 저항 주체의 선정에서 칼뱅과 다른 이유는 그의 논의에 계약 사상과 인민 주권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베자의 계약 사상은 하나님과 통치자, 하나님과 인민, 통치자와 인민 사이의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위 공직자의 권한은 통치자와 인민 사이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하나님과 통치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성은 통치자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된다.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인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통치자는 자신이 부여 받은 권세 하에서 인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 권력 찬탈자에 대해서 인민들이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 찬탈자는 바로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민들이 그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하나님과 인민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인민 주권의 원리를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인민들은 자기들의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더 나아가 공직자들은 인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는 “인민들은 모든 공직자들보다 우선적인데, 인민들이 공직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인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단언하고 있다.<sup>79)</sup>

셋째, 통치자와 인민 사이의 계약으로 인해 통치자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민을 다스려야 했고, 인민은 그러한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했다. 여기에는 상호 복종(*mutua obligatio*)의 의무가 부여된다. 인민들이 통치자를 선출하거나 그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78) *Rights of Magistrates*, pp. 122-123.

79) *Rights of Magistrates*, p. 113.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이 이미 부여된 통치자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가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복종의 의무는 인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공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개인의 뜻에 따라 무효화되거나 철회되지 않기” 때문이다.<sup>80)</sup> 마찬가지로 권력 찬탈자가 인민의 동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통치자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통치자와 인민 사이의 계약 관계로 인해 가능하다.

베자의 논의에는 주권의 근원에 대해서 긴장이 있다. 공직자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어찌하여 인민이 왕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민의 주권 사이에 있는 이러한 긴장에 대해서 베자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셨지만 다윗은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다윗을 선택하는데 있어 인민들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다.”<sup>81)</sup> 베자는 선출의 권리가 인민에게 있음을 말하면서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려고 했다. 칼뱅은 오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외에 어떤 요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민을 통해서 부여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베자가 구약 성서에 나타난 언약(covenant) 사상을 계약(contract)적 맥락으로 전환시킴으로 생겨난 것이다. 언약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면, 계약은 인간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칼뱅은 상호 복종과 언약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칼뱅은 통치자와 인민간에 상호 복종의 원리를 말하지만, 이러한 상호 복종의 원리를 계약적 성격으로 보지 않았다.<sup>82)</sup> 그는 통치자에 대한 복종을 조건적으로 보지 않았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다.

통치자들도 통치를 받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점을 근거로 삼아서 공정한 통치자만을 섬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어리석은 논리다. ... 참으로 우리는 각각 ‘그들의 등에 달린 주머니를 보려고’ 해서는 안된다. 즉 남의 의무를 묻고자 해서는 안되며 자기의 유일한 의무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83)</sup>

80) *Rights of Magistrates*, p. 109.

81) *Rights of Magistrates*, p. 117.

82) Harro Höpfl & Martyn P. Thompson, "The History of Contract as a Motif in Political Thought," *American Historical Review* (84: 1979), pp. 931-933.

베지는 통치자와 인민간의 관계를 상호 복종의 원리에 기반한 계약적 관계로 바꾸어서 자신의 저항 담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계약 사상으로 인해 저항의 근거, 저항의 주체, 저항권의 원천, 저항의 방법 문제에서 칼뱅과 베자 사이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저항 주체와 저항권의 근원에 대한 문제는 부루투스(Brutus)라는 가명하에 쓰여진 한 위그노 팜플렛 『폭군 저항론』 (*Vindiciae contra tyrannos, A Defense of Liberty against Tyrants*, 1579)에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sup>84)</sup> 부루투스는 베자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왕은 인민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며”, 따라서 “인민이 왕보다 위대하다”고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다.<sup>85)</sup> 그는 왕의 모든 권위나 주권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베자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결론이 인민에게까지 저항이 허용된다는 논리로 빠지기 않을까 하여 저항의 권리는 인민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공직자나 삼부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베자와 부루투스는 칼뱅과의 연속성을 가지려는 신중함을 보였지만, 칼뱅의 유산과 대립된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86)</sup>

83) *Institutes*(1559), IV, 20, 29.

84) 이 팜플렛의 저자는 나바르의 앙리의 보좌관을 지냈던 필립 뒤 프래시스 모르네 (Philippe du Plessis-Mornay)라고 추정된다. 그 팜플렛이 다루는 내용, 구조, 관점은 베자의 저서와 비슷하며, 네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첫 번째 질문: 만약 군주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면, 인민들은 군주에게 복종해야만 하는가? (2)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의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군주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누구에게 허용되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3) 세 번째 질문: 공화국을 압제하며 황폐케하는 군주에게 저항한다면, 어느정도까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법의 원칙에 따라 해야하는가? (4) 네 번째 질문: 인접한 나라의 군주들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박해받거나 노골적인 폭정에 억압받는 이웃나라의 인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아니 도와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가?

85) *Vindiciae contra tyrannos*, in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ed. by Franklin, pp. 158-170.

86) Höpfl & Thompson, "The History of Contract as a Motif in Political Thought," pp. 931-933.

#### IV. 오트망: 歷史的 권리로서의 저항

프랑수아 오트망의 『프랑코 갈리아』는 이미 1560년대에 쓰여졌지만 성 바돌로뮤 학살 사건 이후인 1573년에 출판되었다. 이후 이 책은 1576년과 15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당대 최고의 법학자중 하나였던 오트망은 성 바돌로뮤 학살 사건 때 간신히 프랑스를 떠났고, 독일과 스위스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끝내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sup>87)</sup>

『프랑코 갈리아』는 프랑스 헌정 제도의 근원인 공법에 관해 인문주의적인 연구 방법을 도입해 분석한 저서이다. 여기서 오트망은 프랑스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였던 '공회'(public council)에서 인민 주권의 원리를 도출하여 저항 담론을 펼치고 있다. 오트망에 의하면, 로마의 점령 기간을 제외하고 고대 갈리아 지방에서는 전국을 대표하는 기관인 공회(public council)를 통해서 전체 인민의 주권이 표현되었다. 발로아 王家가 세워지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인민의 주권에서 비롯된 공회가 법을 제정하고, 공직자를 임명하고, 심지어는 왕위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존재했던 삼부회를 공회의 변형으로 보았다. 인민 주권에 근거한 공회의 권한을 통해 오트망은 과거 프랑스의 왕위와 공직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과거 프랑스의 왕은 인민을 위한 공직자에 불과했으므로, 만약 왕이 자신의 직분을 남용할 경우 제거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오트망이 왕을 인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로 규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로마 점령 이전의 갈리아 지방의 헌정제도에서 유래된다. 원래 갈리아는 비슷한 언어, 관습, 법을 소유하고 있었던 64개의 지역(civitates)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인민들이 자신의 공동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다.<sup>88)</sup> 공회에서 인민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왕을 선출하였고, 왕은 인민을 대표해서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였다. 선출된 공직자의 직위는 세습되지 않았으며, 그가 가진 권력도 무

87) Franklin,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p. 48.

88) *Franco-Gallia*, p. 53.

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았다. 그는 “인민이 왕 아래 있었다기 보다 왕이 인민의 권력과 권위 아래 존재하였다”라고 단언하고 있다.<sup>89)</sup>

오토망은 프랑크족과 갈리아인의 통합은 일방적인 프랑크족의 복속이 아니었으며, 통합된 국가의 왕은 인민 모두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sup>90)</sup> 공직자들 역시 인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그들의 직위가 결코 세습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 그는 타키투스와 고대의 역사가들, 그리고 중세 연대기 작가들의 문서를 인용하면서, “프랑코 갈리아의 왕들은 인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 왕들을 폐위시킬수 있는 최고 권한도 인민에게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91)</sup> 프랑코 갈리아의 공회는 인민의 주권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공회를 구성하는 세 신분에서 명확해 진다. 공회는 게르만 전통의 영향을 받아 왕, 봉건 군주와 귀족들, 그리고 각 지역 인민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성직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sup>92)</sup>

공회의 권위는 프랑코 갈리아가 통합된 시기부터 카페 왕조가 성립된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오토망에 의하면 공회는, 왕의 선출과 폐위, 평화와 전쟁의 선포, 그밖의 국가대사들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공회는 입법적인 권한뿐 아니라 행정권까지 행사하였으며, 공회의 결정사항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범될 수 없었다.<sup>93)</sup> 이러한 공회의 권한은 메로링 왕조와 카롤링 왕조를 통하여 더욱 신성시 되었다.<sup>94)</sup>

그러나 10세기 후반 카페 왕조가 들어서면서 프랑코 갈리아의 제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위그 카페(Hugh Capet)는 새로운 왕국의 결속을 위해서 공작(duchies)과 백작(counties)을 선출하도록 하고, 그 이후 이 직위의 세습을 예외로 인정하였다. 오토망은 이것을 가리켜 프랑코 갈리아의 제도를 변질시킨 큰 요소였다고 개탄하였다.<sup>95)</sup>

---

89) *Franco-Gallia*, p. 55.

90) *Franco-Gallia*, pp. 56-57.

91) *Franco-Gallia*, p. 58.

92) 게르만 전통은 바로 군주제적인 요소인 황제, 귀족정의 요소인 봉건군주, 민주주의적 요소인 각 지방의 대표들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Franco-Gallia*, p. 69.); 오토망은 당시의 귀족은 신분 계급을 지칭하기 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지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1576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삼부회를 구성하였던 계급 자체가 사회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까지 언급하고 있다. (*Franco-Gallia*, pp. 66-67.)

93) *Franco-Gallia*, pp. 73-76,

94) *Franco-Gallia*, pp. 76-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왕조 하에서 공회의 권한은 여전히 존중되었고, 왕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공회에 그 의견을 물어야 했다.<sup>96)</sup> 비록 카페 왕조에서 관직은 세습되었지만, 여전히 세습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국왕보다도 인민에게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왕이나 공직자의 직위가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 결코 왕이나 공직자를 위해 인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트망의 논의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단연 삼부회이다. “프랑코 갈리아 왕국의 최고 통치기구는 매년 열리는 국가 공회였으며, 이것이 나중에 삼부회라 불리워졌기 때문에<sup>97)</sup> 삼부회야말로 당시의 부패한 프랑스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구라고 그는 생각했다. 삼부회의 권한에 대한 논란은 당시의 위그노들에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다. 오트망은 삼부회가 루이 11세에 대항한 삼부회의 사건에 큰 비중을 두었다. 루이 11세가 왕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인민들은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부르봉 공작과, 페리 공작을 비롯한 명사들은 파리고등법원에, 성직자들은 왕에게 공동선과 복지를 위해서 왕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sup>98)</sup> 오트망은 『루이 11세의 연대기』(*Chronicles of Louis XI*)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했던 점은 삼부회를 소집하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삼부회만이 모든 악덕들에 대한 해결방안이었고 삼부회만이 이러한 종류의 불행들을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up>99)</sup>

오트망은 지금까지 인민의 뜻을 반영하던 삼부회의 권한이 축소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의 영향이 컸음을 지적하였다.<sup>100)</sup> 고등법원과 공회의 권

---

95) *Franco-Gallia*, pp. 81-82.

96) *Franco-Gallia*, p. 83.

97) *Franco-Gallia*, p. 66.

98) *Franco-Gallia*, pp. 83-84.

99) *Franco-Gallia*, p. 84.

100) 오트망에 의하면 고등법원을 지칭하는 “parlement”(parlamentum)은 원래 다양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공의 관심사를 심의하는 회의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따라서 중세 연대기에서는 군주들이나 그들의 사자가 모여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협상

한에 대한 논의는 오트망이 1586년에 이 책의 세 번째 판을 내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는 14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등법원이 왕의 통치를 감독하는 삼부회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16세기에는 고등법원이 프랑스의 도덕적 타락에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sup>101)</sup> 1586년의 제3판에서 그는 “프랑스의 왕은 결코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지 않으며, 일정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된다”라는 제목을 추가시켰는데,<sup>102)</sup> 이 제목은 “프랑스의 왕은 결코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지 않으며”, ‘삼부회’가 아닌 ‘파리고등법원’에 의해 “제한된다”는 뉘앙스였다.<sup>103)</sup>

오트망은 칼뱅이 인민의 공직자의 대표적 예로 들었던 스타르타의 행정관(ephor), 아테네의 지방 장관(demarch), 로마의 호민관(tribune)에 비견되는 것으로 당시 프랑스의 삼부회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로마 정복 이전의 갈리아 지방에서 인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와 프랑코 갈리아 시기에 인민에 의해 선출되었던 왕에 각별히 주목하였다. 따라서 오트망의 논의는 저항 담론에서 역사적 차원을 새롭게 도입시키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가 내린 결론 또한 역사적이다.

따라서 자유에 의해 건설되고 확립된 우리 조국은 1500년 동안이나 자유롭고 침해 받지 않는 상황을 유지시켜왔으며 심지어 폭군들의 권력에 대항해 힘과 무력으로 그것을 수호했다.<sup>104)</sup>

---

하는 회의를 “parlement”이라 칭했다고 오트망은 보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parlement”의 권위가 컸기 때문에 카페 왕조는 공회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그들은 공회를 믿음직한 “의원”(senator) 몇 사람으로 대체하였고, 심지어 과거에 존엄했던 이름인 “parlement”을 그 “의회”(senate)에 부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 첫째, 어떤 왕실 법이나 칙령도 이 의원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둘째, 프랑스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의회 앞에서 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함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오트망에 의하면, 과거 공회에 있었던 모든 권력이 “모조 의회”(counterfeit Senate)에 의해 전복되었으며 이후 왕들은 자기의 계획에 유용하지 않는 자들을 의원으로 선임하지 않았다. (*Franco-Gallia*, pp. 88-90.)

101) Franklin,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p. 27.

102) *Franco-Gallia*, pp. 90-96.

103) 오트망과 같이 위그노의 저항 담론을 주도했던 모르네는 고등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고등법원이 과거 삼부회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Yardeni, "French Calvinist Political Thought, 1534-1715," p. 323.)

오트망이 볼 때 프랑스 왕의 주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민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왕이 인민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은 왕에게 곧바로 저항할 수 있었다. 오트망에 의하면 인민의 주권은 이론적인 계약의 문제를 넘어서 프랑스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바 있는 역사적인 권리의 문제였다. 따라서 당시 위그노의 저항 운동은 종교적 자유를 찾기 위한 것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인민들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절대 군주정에 대한 오트망의 저항 담론은 무엇보다도 인민 주권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오트망이 삼부회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인민들의 주권이 표현되었기 때문이었다. 칼뱅에게 있어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베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민의 주권 사이에서 중간 지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오트망에 이르러서 이러한 긴장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저항의 근거는 오직 인민의 주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위그노의 저항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오트망의 계획에는 또 다른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트망이 그가 근거로 내세우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진위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엇갈린다. 세바인(G. H. Sabine)은 갈리아 지방에서 공회가 삼부회로 발전하였다는 오트망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반해 더닝(W. A. Dunning)은 오트망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그의 작품은 역사적 방법을 적용한 수준 높은 역작이라 평가하고 있다.<sup>105)</sup>

오트망의 저항 담론은 역사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다. 그의 글에는 인문주의적인 차분함과, 정치가적인 선동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로마, 프랑스의 역사가들을 많이 인용하는 인문주의적 박식함을 보이지만, 프랑스 현실을 언급할 때는 격양된 어조를 보인다. 오트망은 프랑스 역사를 로마 점령전 갈리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프랑스 현실을 논할 때에는 냉정한 논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살리법(Salic)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왕위의 모계 상속을 금지한 것은 살리법에 근거

---

104) *Franco-Gallia*, p. 86.

105) G. H. Sabine,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Illinois: Dryden Press, 1933), pp. 351-352; W. A. Dunning, *A History of Political Theories* (New York: Macmillan, 1961), pp. 55-56; 권태경, 『종교개혁자들의 정치사상』 (요나출판사, 1995), p. 37.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오트망이 볼 때 그것은 근거없는 주장이었다. 살리법은 사유 재산의 상속만을 다룬 법이지 결코 공적의 상속을 다루는 법이 아니었다.<sup>106)</sup> 오트망의 이같은 주장은 프랑스 왕실의 모계 혈통의 상속자이면서 위그노였던 나바르의 앙리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고 하겠다. 실제로 1585년 이후 나바르의 앙리가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오트망의 이러한 주장은 큰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sup>107)</sup>

오트망의 이러한 기획은 칼뱅주의자로서 그의 종교적 세계관과 배치되지 않는다. 칼뱅주의자들은 모든 세속적 방법론을 포괄한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인문주의적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인문주의적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안에 포섭된다. 이 점은 칼뱅이 참된 질서의 회복을 말할 때 영적인 질서 뿐 아니라 자연적 질서를 동시에 언급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자연적 질서를 영적인 질서에 종속되는 이차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한 위그노의 팜플렛인 『자명종』은 오트망의 영향력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성 바돌로뮤 학살 직후에 무명으로 발행된 『자명종』(*The Alarm Bell or The Awakener*)도 오트망처럼 인문주의적 정치 구상을 지향하고 있다.<sup>108)</sup> 이 저서는 두 개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대화는 성 바돌로뮤 축일의 학살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이고, 두 번째 대화는 저항권에 대한 일반적 원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다. 성 바돌로뮤 축일의 기억속에서도 저자는 인문주의적 가치안에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나는 위그노들이 (인민의 복종에 대해서) 말하듯이 그렇게 단순히 말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위그노들은 너무나 유순하고 복종적이다. 그러나 한 인간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해 건전한 인간 이성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같이 나

---

106) *Franco-Gallia*, pp. 62-64.

107) Franklin,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pp. 21-22.

108) 이 저서는 Eusebe Philadelphie Cosmopolita라는 가명을 쓴 무명의 위그노에 의해 쓰여졌다. 원제목은 *Le Reveille-Matin des François, et de leurs voisins* 이다. 이 저서의 영역은 *The Alarm Bell* 혹은 *The Awakener* 두가지 인데, 스키너는 *The Alarm Bell* 보다 *The Awakener* 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한다.(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p. 304. 의 각주(4))

는 이 일에 대해서 의롭고 자연스러운 프랑스인으로서 말할 것이다.<sup>109)</sup>

『자명종』의 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이성,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사이에 대립된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칼뱅주의자들의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理性의 적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포괄한다. 기존 질서의 불합리성,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칼뱅주의자들은 인문주의의 공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명종』의 저자는 이성적 판단에 호소하면서, 당시 프랑스 사회가 가지는 부조리와 통치자와 인민의 종속관계를 이성적 자유로 대치하라고 권고한다.

여러분은 짐승들도 참지 못할 그 많은 비인간적 상태에서 벗어나려 시도하지는 않을지라도, 다만 인간성에 의지함으로써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섬기지 말 것을 결단하라. 그러면 자유로울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폭군과 부딪치고 전복시키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그를 더 이상 지지하지는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받침대를 빼 버린 입상이 자기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듯이, 폭군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sup>110)</sup>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역사적 방법론이나 인문주의적 방법론을 종교개혁자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 떼어 놓으려 한다. 그러나 한스 솔이 지적하듯이, 칼뱅주의자들에게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적 정치 윤리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선한 이성적 정치는 분명히 종교개혁적 성격을 지니며, 종교개혁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는 인간성 (*humanitas*)에 대한, 인간성을 위한 봉사로서, 이성적 하나님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sup>111)</sup> 인문주의적 가치는, 영적 영역 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도 참된 질서를 회복하려는 칼뱅주의자들의 세계관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위그노의 저항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오트망의 인문주의적 기획을 스키너는

---

109) Eusebe Philadelphie Cosmopolita, *Le Reveille-Matin des François, et de leurs voisins* (Edimbourg, 1574), p. 181의 내용을 Hans Scholl, *Reformation und Politik*, p. 254에서 재인용함.

110) *Le Reveille-Matin*, p. 190 의 내용을 *Ibid.*, p. 253에서 재인용함.

111) Hans Scholl, *Reformation und Politik*, p. 257.

전적으로 정치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스키너는 오토망과 『자명종』의 저자의 방법이 정치 사상의 논의에 세속적, 역사적 차원을 새롭게 도입시킨 것으로만 본다.<sup>112)</sup> 스키너의 시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오토망과 『자명종』의 저자가 인문주의자이자 동시에 철저한 칼뱅주의자임을 주목해야 한다. 오토망의 기획이 세속적 시각으로 보이는 것은 역사적 정당화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위험성 때문이다. 오토망의 논거가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의도는 성 바돌로뮤 축일의 학살로 인한 위그노의 저항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다.<sup>113)</sup> 그래서 그는 삼부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면서,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위그노의 저항을 정당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오토망의 논거는 '역사적'이면서도 '정치적'이며, '사실적'이면서도 '이데올로기적'일 수 밖에 없었다.

---

112)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p. 234, pp. 310-318, p. 316.

113) Julian Franklin, *Jean Bodin and the Rise of Absolutist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3), pp. 42-44.

## V. 저항권의 연속성과 단절성

연속성과 단절성의 문제에 접근하려면 우선 회플(Harro Höpfl)의 언급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회플은 역사의 흐름이나 한 인물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성장과 발전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sup>114)</sup> 필자가 생각하기에 성장과 발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축적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이다. 축적을 무시하고 변화만을 강조하여 급진화로 보려는 경향과, 변화를 무시하며 축적만을 강조하여 일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 오류이다. 단절과 연속의 문제는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 역사에서 연속과 단절의 문제는 그 시대의 현실이 가지는 다양한 차원과 역사적 사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는 그것이 연속이라면 어떤 연속인지, 단절이라면 어떤 단절인지를 밝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연속과 단절은 없다. 16세기 저항권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는 당시 저항의 담론에 깔려있는 전제들의 성격을 분석하며 그 속에서 해체된 것과 생성된 것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정치적 해석을 통해 볼 수 있는 저항 담론의 변화와,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그 저항 담론이 가지는 심층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치적 해석에서 저항권에 관한 칼뱅과 그 후계자들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성 문제는 주로 '후기 칼뱅의 급진화' 문제와 함께 취급되었다. 1550년대 말까지 칼뱅이 복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두 입장은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후기 칼뱅의 급진화 문제는 주로 1560년 이후 칼뱅의 주석과 설교에서 발견되는 급진적인 문구와 제1차 위그노 전쟁 전후의 그의 모호한 행동에 근거한다.

첫 번째 사항은 1560년의 앙보아즈의 음모(The Conspiracy of Amboise)와 관련된 칼뱅의 태도이다. 1559년 앙리 2세의 사망후 나이가 어린 프랑수아 2세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을 신봉하는 기즈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기즈 가문의 위협 때문에 위그노들은 나바르의 앙리가 어린 왕을 위해 섭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560년 3월 위그노 지도자 콩데는 왕을 납치하여 기즈 가문에서 탈출시키고자 했

---

114) Harro Hö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2), p. 1.

는데, 이것이 바로 앙보아즈의 음모 사건이었다.<sup>115)</sup> 이 당시 콩테를 비롯한 이 음모의 주도자들은 사전에 칼뱅의 동의를 얻으려 하였지만 칼뱅은 이 사건에 반대하였고, 베자와 오트망은 도덕적인 면에서 이들의 계획을 인정했다. 그러나 앙보아즈 음모가 실패한 후 칼뱅은 프랑스의 실정법 안에서 나바르의 앙리가 정권을 잡도록 중용하였다. 1560년 7월에 그는 나바르의 앙리에게 베자를 보내어 모후인 캐더린 드 메디치와 공동 섭정을 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앙리가 응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1560년 12월 4일 불링거에게 보낸 칼뱅의 편지는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우리들의 어떤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온 교회를 구하고자 이러한 수고를 담당했음에도 말입니다. 나바르의 왕은 자발적으로 나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베자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 이점은 이제 모두에게 알려져 버린 사항이지만, 결국 나바르의 왕과 그의 형제[콩테]는 몰락으로 가는 길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충고가 받아들여졌더라면, 아마 한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을 것입니다.<sup>116)</sup>

그 해 12월 프랑수아 2세가 갑자기 사망하자, 불과 10세에 불과한 그의 동생이 샤를르 9세로 즉위하였고 결국 캐더린 드 메디치가 섭정을 함으로써 위그노가 정권을 장악하게 하려던 칼뱅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칼뱅의 모호한 행동은 제1차 위그노 전쟁시에도 나타난다. 전쟁이 일어난 후 1562년 4월 리용에서 위그노들이 가톨릭 교회를 약탈하고 도시를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때 칼뱅은 이 사건에 경악하면서 위그노들의 무력적인 행동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리용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자 그는 스위스의 여러 개신교 州들(cantons)에 편지를 써서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그는 불링거에게 편지를 써서 베른이 위그노들을 도와주도록 요청했고, 프랑스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전쟁 비용의 조달을 촉구하였다.

---

115) Prestwich, "Calvinism in France, 1555-1629," pp. 87-88.

116) "Letters to Bullinger" (December 4th, 1560), in *John Calv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by John Dillenberger (New York: Anchor Books, 1971), p. 74.

1560년에 나온 『사도행전 주석』(재판)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1561년의 『다니엘서 강해』 (*Lectures on Daniel*), 1562년에서 1563년까지의 『사무엘 上 설교』 (*Homilies on the first book of Samuel*) 에 등장하는 과격한 표현들, 그리고 『기독교 강요』 1559년판에 다니엘의 저항을 새로 삽입하였다는 점은 후기 칼뱅의 급진화의 증거로 자주 채택되었다.<sup>117)</sup> 삽입한 내용과 전후 문맥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며, 주께서 입을 여실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또 누구보다도 더 중요시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들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경하지 말라. 이런 경우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엄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최고의 권력 앞에 굴복한다고 해도 그들의 위엄은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다니엘은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신이 왕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단6:22-23)<sup>118)</sup>

칼뱅의 모호한 행동과 말년의 과격한 표현에 관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 양분화된다. 먼저 알렌, 킹던, 스키너, 야르디니 등은 칼뱅의 언행에 담겨있는 급진성을 부각시킨다. 알렌은 비록 칼뱅이 앙보아즈의 음모 자체에는 반대했지만 1561년 콜리니에게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다음 구절을 근거로 칼뱅의 저항 사상이 급진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왕의 혈연 군주들이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고등법원이 이들 계획에 동조한다면, 인민들이 이들에게 무력 저항을 제공하

117)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만약 왕, 제후, 공직자가 하나님의 명예와 정의를 감소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평범한 사람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 통치자들이 불경하고도 대담하게 하나님에 대항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본래 자리로 원위치 당해야 한다”(사도행전 5:29절 주석) “지상의 군주들이 하나님께 대항할 때, 그들은 자기 권력을 버렸으며 사람으로 인정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대항해야 한다.(직역하면,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다니엘 6:22 주석);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p. 220; *Institutes*(1559), IV, 20, 31. 각주 (54).

118) *Institutes*(1559), IV, 20, 32.

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다.”<sup>119)</sup> 또한 그는 칼뱅이 나바르의 앙리를 통해 어린 왕을 섭정토록 종용한 것은 『기독교 강요』에서 주장한 인민의 공직자에 의한 저항권을 이론의 차원이 아닌 현실적 차원에서 실현하려한 것이며, 이것은 칼뱅의 저항 사상이 급진화된 증거로 본다. 킹던과 스키너는 칼뱅의 말년 설교와 주석의 급진적이고 反군주제적 표현과 그의 초기 저작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칼뱅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다니엘의 실례를 삽입한 것을 그의 저항권이 급진화되었다고 주장한다.<sup>120)</sup>

그러나 스프록슨과 키인은 칼뱅의 언행이 가지는 모호함을 인정하지만 그보다 칼뱅과 그 후계자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스프록슨은 칼뱅이 나바르의 앙리로 어린 왕을 섭정토록 시도한 것을 합법적인 경로 안에서 위그노가 정권을 잡도록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칼뱅이 시도한 것은 인민의 공직자에 의한 저항 이론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실행하려던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오히려 스프록슨은 무력 저항에 대해 금하는 칼뱅의 편지들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그의 저항 사상이 후계자들과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sup>121)</sup> 키인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 다니엘의 실례에 대한 삽입은 적극적 저항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에 대한 수동적 불복종을 표현한 것이라 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최우선의 복종을 주장한 칼뱅의 초기 사상에 비추어 키인은 후기의 급진적으로 보이는 구절을 새롭게 해석한다.<sup>122)</sup>

---

119) "Letter to the Admiral de Coligny" (April 16th. 1561),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VII, tr. & ed. by J. Bonet & H. Beveridge (Grand Rapids, Mich.: Baker, 1983), p. 176-177; 이것이 논의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Allen,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n the Sixteenth Century*, p. 59;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윤리』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 219 참조

120) Allen,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n the Sixteenth Century*, pp. 57-59; Kingdon, "The First Expression of Theodore Beza's Political Ideas," pp. 92-94;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p. 214, pp. 219-220; Yardeni, "French Calvinist Political Thought, 1534-1715," p. 316; Bouwsma, *John Calvin*, pp. 207-209;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pp. 186-187.

121) Sproxtton, *Violence and Religion*, pp. 14-20.

122) Keen, "The Limits of Power and Obedience in the Later Calvin," pp. 254-259, pp.

이러한 연속과 단절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양 진영의 논쟁 초점이 전혀 다르게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쪽은 콜리니에게 보낸 칼뱅의 편지속에 담겨진 급진적인 몇몇 구절에 주목하며, 다른 한 쪽은 그 편지 전반에 깔려있는 보수적인 특징에 주목한다. 한쪽은 칼뱅의 반군주제적인 표현을 강조하며, 다른 한 쪽은 무력 저항에 반대하는 그의 편지를 강조한다. 이점은 다니엘의 저항 실패에 대한 삽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쪽은 왕의 불경한 명령에 다니엘의 저항 실패가 삽입된 것 자체에 주목하여 '적극적 저항'으로 해석하며, 다른 한 쪽은 다니엘의 저항방법이 수동적 불복종임에 주목하여 '소극적 불순종'으로 해석한다. 동일한 사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며, 반대의 결론으로 유도된다. 이러한 일련의 예들은 '칼뱅의 급진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역사적 사실의 문제와는 별도로 상당히 목적론적인 오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칼뱅과 동시대를 살았던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의 다음 말은 참으로 예언적이다.

우리의 행위와 견해들이 본질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지어 훌륭한 저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에 대한 일관성 있고 견실한 구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나는 종종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의 일반적 특징을 선택하거나 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그 상에 맞추어 배열하고 해석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것들을 충분히 왜곡시킬수 없다면 그들은 가서 그것들은 위장된 것이라고 설명해 버린다.<sup>123)</sup>

'칼뱅은 무력 저항을 인정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은 칼뱅과 그 후계자들의 연속성을 16세기의 문제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16세기 칼뱅주의 저항권 문제를 20세기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오류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시각에서 우리는 저항 주체의 성격과 주권의 근원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 그 이상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우선 우리는 위그노의 저항 담론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인민의 공적자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저항 주체의 성격과 권위를 규정하면서 칼뱅의 후계자들은 점진적으로 입헌주의적 성격과, 인민주권론의 경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러면 저항 주

---

264-273.

123) Bouwsma, *John Calvin*, p. 230에서 재인용

체의 변화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칼뱅은 공직자를 제외한 인민이 저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통성 있는 군주이건 정통성이 없는 찬탈자이건 마찬가지이다. 이점에서 칼뱅은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인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통성 없는 군주의 경우 그를 살해해도 된다고 보았다. 베지는 정통성이 있으나 폭군으로 전락한 군주와, 왕위 찬탈자를 구분한다. 그래서 정통성 있는 군주에게는 인민이 저항할 수 없지만, 왕위 찬탈자의 경우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베자가 볼 때 가장 우선적인 저항 주체는 칼뱅과 마찬가지로 하위 공직자와 삼부회였다. 구체적인 저항의 방법으로 오트망은 삼부회의 기능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베지는 자신의 논의에서 하위 공직자와 삼부회를 동시에 다루었다. 그는 삼부회를 하위 공직자의 역할을 떠 맡을 수 있는 기구중 하나로 취급하였다. 이점은 칼뱅에게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오트망이 다룬 것은 하위 공직자의 역할이나 그것과 관련된 저항권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오직 삼부회의 권한에만 집중하였다. 그래서 그는 삼부회의 권한축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등법원을 공격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칼뱅, 베자, 오트망으로 이어지는 저항 담론에서 저항 주체는 공직자에서 삼부회와 같은 입헌주의적 기관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저항권의 출처 문제이다. 칼뱅은 공직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주로 초월적인 입장에서 다루었다. 그에게 있어 공직자가 저항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위 공직자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세로 폭군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자의 입장은 칼뱅과 연속성을 지니는 동시에 계약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베지는 공직자의 저항권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찾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민들의 선출을 통해서 부여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통치자의 정통성이 인민에 의해 부여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는 하위 공직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뿐만 아니라 인민과의 계약이라는 차원에서, 계약을 위반한 통치자에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민도 정통성 없는 폭군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오트망의 경우, 저항권은 확실히 인민으로부터 나왔다. 그것은 갈리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였던 권리였지만, 당시의 위그노들에게는 박탈되었던 권리이다. 따라서 칼뱅에서 그 후계자로 이어지는 저항권은 점진적으로 인민 주권론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그노의 저항 담론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측면을 넘어선 심층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칼뱅주의의 저항 담론은 한마디로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칼뱅주의자들의 '혁명적' 성격은 그들의 세계관에 기인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루터주의와 칼뱅주의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루터의 출발점은 칭의를 얻는 믿음의 특별한 구원론적 원리였다. 반면에 칼뱅은 더 광범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보편적인 우주론적 원리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 루터주의는 교회론적이고 신학적인 성격에만 자신을 한정시킨다. 그러나 칼뱅주의는 교회 안과 밖 인생의 모든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sup>124)</sup>

사회 구조를 향한 루터주의자들의 위치는 중세인들처럼 복종적이었다. 그들은 삶에서 종교적인 요소와 비종교적인 요소를 구별하여 전자에 강조를 주었기 때문이다.<sup>125)</sup> 그러나 칼뱅주의자들은 결코 종교적인 요소와 비종교적인 요소를 구별하지 않았다. 칼뱅주의의 '혁명성'은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모든 분야에 미친다는 사고 방식에서의 혁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칼뱅주의는 하나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세계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종교개혁 초기에 칼뱅주의보다 더 혁명적이었던 것은 재세례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세례파에서 저항이론이 나오지 않고 칼뱅주의에서 나온 것은 칼뱅주의의 현실 개혁적 성격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실 개혁적 성격으로 인해 칼뱅주의자들은 정치적 사고의 강조점을 처음으로 국왕에서 성도들(saints)로 전환할 수 있었다.<sup>126)</sup> 마키아벨리나 보댕의 경우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논할 때 오직 군주에게만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군주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복종하는 신민(subject)이었다. 하지만 칼뱅주의자들에게 모든 성도는 자신이 처한 삶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적극적인 주체였다. 하위 공직자가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차원이었다. 결국 이들은 가톨릭주의처럼 집단적 의식 속에서 개개

---

124)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p. 22-23.

125) Nicholas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 Eerdmans, 1983), p. 10.

126) Walzer,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pp. 1-2.

인이 받은 부름을 회피하지 않았고, 루터주의 처럼 비종교적 요소보다 종교적 요소에 우위를 두지도 않았다.<sup>127)</sup>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다. 20세기의 시각에서 주목되는 것은 칼뱅에 비해서 그 후계자들이 정치적으로 급진화 되었다는 점 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급진화의 진정한 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점진성'과 '적극성'이었다. 칼뱅주의자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신학적이면서 정치적이다. 이점은 칼뱅과 그의 후계자인 오트망과 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칼뱅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신약성서에서 이해하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더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신약의 종말론이 시간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공간적 측면을 강조한다.<sup>128)</sup> 칼뱅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교체되는 세상의 나라와 영구 불변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립시키는 다니엘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위그노들의 정치적 위상이 두드러지는 시기에 『다니엘서 주석』을 프랑스에 있는 그의 동료들에게 예언자적 서문을 붙여 헌정했다. 이 서문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진보와 이 세상의 권력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종교적 결단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sup>129)</sup>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과 공간성의 결합은 그가 말년에 행한 『사무엘 下 설교』에서 극적으로 발견된다. 사무엘 下에 대한 칼뱅의 설교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출판된 지 3년 후, 그가 죽기 2년 전에 시작되었다. 칼뱅은 이 설교에서 구약 다윗의 통치를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통치에 적용시키고 있다. 영국, 폴란드,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는 제네바 회중을 향해서 국가, 공직자, 군주의 책임에 대해서 역설하였다.<sup>130)</sup> 이 설교에서 줄곧

---

127)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 by Olive Owen (New York: Macmillan, 1931), p. 602.

128) Hans Scholl, *Reformation und Politik*, pp. 147-148; Anthony A. Hoekema, "The Covenant of Grace in Calvin's Teach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2: 1967), pp. 136-138;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칼뱅의 논의는 *Institutes*(1559), II, 11, 1 을 참조하라.

129) Hans Scholl, *Reformation und Politik*, p. 148.

130) Heiko A. Oberma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Essays in Late Medieval and Early*

드러나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왕과 승리자로 지목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 종교개혁은 바로 신자들의 삶이 새롭게 질서를 되찾는 것였다. 사탄과 그의 악한 도구들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질서를 침식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으로 이 질서는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역 교회들 뿐 아니라 도시와 지역의 공적인 생활가운데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최종적인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성도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sup>131)</sup>

‘다윗이 40년을 통치하였더라’에 관한 설교에서 칼뱅은 결코 다윗의 통치가 계속해서 도전받고 방해받았음을 강조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는 비록 방해받고 도전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것은 정치적인 종말론으로 특징지어지는 칼뱅의 종교적 유연과도 같았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찬란한 빛을 발하지 않으며, 과소 평가되며, 때때로 다수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지금 그리스도 자신이 칭호를 부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를 얻지 못함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확실한 때(kailos)에 대한 기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제한되었음을 바라볼 때,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소수 밖에 없고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가 몇몇 안됨에도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음을 볼 때,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너무 작고 세상에 의해서 멸시받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다윗의 통치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모습에 우리들의 눈을 고정시키고, 비록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졌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때(kailos)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며, 그분이 흠어진 자를 모으시고, 흐트러진 것을 회복하시며 혼잡스러운 것에 질서를 세울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립시다. <sup>132)</sup>

---

*Reformation Thought* (Edinburgh: T. & T. Clark, 1986), p. 236.

131) *Ibid.*, p. 237.

132) *Supplementa Calviniana, v: Sermones de libro Michaeae*, ed. by Jean Daniel Benoît,

여기서 하나님은 군대의 대장으로 묘사되며, 그리스도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름을 받은 정치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신자들의 마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으로 나아가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의 이 설교는 단순히 정치적인 종말론을 함축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다스리는 정치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포함한다.<sup>133)</sup>

윌토스트프가 지적하듯이 초기 칼뱅주의자들은, 삶의 인도자로서 성서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서를 해석할 때 구약 예언서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sup>134)</sup> 칼뱅주의자들은 성서 해석학에서 구약의 원리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루터주의가 구약보다 신약의 복음적 원리를 강조한 반면, 칼뱅주의는 신구약 성서의 통일성과 일치성안에서 구약 성서를 복음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한다.<sup>135)</sup> 따라서 그들의 표현 방식은 시간적이지 아니라 공간적이며, 종말론적 미래와 종말론적 현재가 동일하다. 그들은 최종적 구원보다 현재적 갱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136)</sup> 이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장된다는 칼뱅의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그의 후계자들에게 그대로 연결됨을 뜻한다.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항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베자와 오트망은 각각 계약적인 차원과 역사적 차원에서 논하였다. 베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계약 이론을 내세울 때 구약의 언약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다. 베자는 士師 時代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계약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부족 국가에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해갔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발전

---

(Neukirchen, 1964), i. 104, 42; 105, 10. 의 내용을 *Ibid.*, p. 237-238에서 재인용; John Calvin, *Sermons on 2 Samuel* (Pennsylvania: Banner of Truth, 1992)/ 김동현 옮김,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Ⅱ』(솔로몬, 1994), pp. 74-74. 앞으로 표기될 페이지는 번역본의 것임.

133) Oberma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p. 238.

134) Wolterstro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p. 13.

135) Klaas Runia, "The Hermeneutics of the Reformers," *Calvin Theological Journal* (19: 1984), p. 142.

136)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51), p. 195.

을 베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저항론은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의 논의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약이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기반한 저항 담론은 줄어든 반면 계약에 기반한 담론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트망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역사성에 집중하고 있다. 비록 그의 논의 속에는 어떠한 신학적인 면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칼뱅, 베자와 오트망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까? 오트망에 대한 칼뱅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오트망은 한 편지에서 "내가 진정한 종교를 발견한 그날 이래로 당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당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라고 고백하고 있다.<sup>137)</sup> 우리는 먼저 오트망이 칼뱅과 베자처럼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저항 담론을 다루는 그의 방식 자체가 이미 기독교화가 되기 이전인 갈리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트망의 인문주의적 방법론은 결코 칼뱅주의자들의 세계관과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트망의 담론은 신학과 정치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선조들의 지혜에 주목했고, 거기서 자신의 저항 담론을 정당화시킨다. 그래서 클레이저(F. Kleysler)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칼뱅과 오트망의 연속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대가 전진하면서 『프랑코 갈리아』는 칼뱅에 비해 왕에 대한 복종은 덜 강조하고 삼부회의 저항권을 더 날카롭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자 사이의 대립은 없다."<sup>138)</sup> 요컨대, 칼뱅의 저항 담론이 수직적이라면, 베지는 수평적이며, 오트망은 역사적이다.

칼뱅의 말년 저작에 등장하는 급진적인 구절은 칼뱅이 무력저항을 인정하였는가와 같은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는지를 보았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칼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급진성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

137) Bouwsma, *John Calvin*, p. 23, 각주 (80), pp. 242-243에서 재인용함.

138) F. Kleysler, "Calvin und Franz Hotman," in *Geschichtliche Kräfte und Entscheidung: Festschrift für O. Becker* (Siesbaden, 1954), p. 53의 내용을 Hans Scholl, *Reformation und Politik*, p. 228에서 재인용함.

있다. 악한 통치자들에게 들려주는 그의 메시지는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의 외침과 흡사하다.<sup>139)</sup> 그의 급진성은 말년 저작의 특징이 아니라, 이땅에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현재' 속에서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버만(Heiko Oberman)의 다음 말은 참으로 타당하다.

(칼뱅주의자들에게) 지금 여기에 세워진 '조그만' 나라와 '완전히' 세워질 미래의 나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조그만' 나라와 '완전한' 나라 사이에 있는 단절성은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전진시키시며' '점점 자라게 하신다.' 거기에 발전이 있다. 그 절정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을 통해서 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sup>140)</sup>

에이어(Carlos Eire)는 16세기 칼뱅주의 저항권의 이상 파괴적인 성격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6세기 칼뱅주의자들이 반대한 것은 가톨릭교회나 절대 군주정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이 반대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높아지려는 가톨릭 교회나 절대 군주정의 행위와 동기였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모든 행위와 동기를 이상 숭배요 반역으로 보았다.<sup>141)</sup> 그러므로 그들의 저항권은 바로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려던 프랑스 절대 군주정에 대한 반대였다. '하나의 왕, 하나의 법, 하나의 신앙'이라는 구호 아래 당시 프랑스는 군주제 자체를 신성화시켰으며, 따라서 칼뱅주의자들의 저항권은 이상파괴의 종교적 성격을 띠 수 밖에 없었다.<sup>142)</sup> 칼뱅주의 저항권이 가지는 종교적 성격은 신앙의 영역이나 정치의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편만하게 미친다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나왔다.

---

139) Max Engammare, "Calvin: A Prophet without a Prophecy," *Church History* (67: 1998), pp. 656-657.

140) Oberma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p. 238.

141) Eire, *War Against the Idols*, p. 217.

142) *Ibid.*, p. 296 ; Dale K. Van Kley, *The Religious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 From Calvin to the Civil Constitution 1560-1791*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96), pp. 22-24.

## VI. 맺음말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사물을 명확하게 바라보려고 할 때 인간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네 가지의 '우상'(idols)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우상이란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우상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보편적 편견, 특수 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인해 생기는 편견,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인해 생기는 편견, 이미 퍼져있는 신념으로 인해서 생기는 편견을 각각 말한다.<sup>143)</sup>

저항권이라는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려고 할 때 우리는 20세기가 가지는 편견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소수의 의견보다는 기존의 보다 널리 유통되어 있는 관념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저항권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친숙함 속에서 우리는 저항의 담론을 펼친 사람들이 바로 칼뱅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저항권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만 조명하는 것은, 저항 논리가 가지는 정치적 체계(system)의 이해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 체계 아래 감추어진 저항 주체의 인격(person)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매킨타이어의 지적처럼, 우리는 '16세기 저항권'이라는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구조적, 궁극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원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 담론은 이러한 세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반영해 준다. 먼저, 저항권의 원조가 되었던 칼뱅은 궁극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항의 문제를 바라 보았고, 그의 후계자들의 저항론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의미를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이후의 칼뱅주의 저항 담론은 칼뱅의 유산과 연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칼뱅주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칼뱅과의 연결 고리를 찾으려 했고, 칼뱅에게서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했으며, 칼뱅에 의해 부여된 종교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절대 군주정에 저항했던 것이다. 이들의 저항 담론은 하나님만

---

143) David A. Fraser & Tony Campolo, *Soci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2)/강대기 옮김,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 (IVP, 1995), pp. 23-24.

물을 주관하고 있다는 종교적 세계관속에서 배태되었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저항'은 칼뱅주의 저항 담론의 궁극적 측면을 지시한다.

베자의 저항권 담론은 구조적이다. 그는 저항의 여러 원칙을 담보하고 있는 계약의 문제에 집중해서 이미 칼뱅이 설정한 저항의 의미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부각시켰다. 베자는 구약 성서의 언약에 인민 주권의 원리를 도입하여 계약적 맥락에서 저항권을 인식하였다. 이점은 부루투스라는 가명으로 쓰여진 위그노의 팜플렛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베자와 부루투스는 칼뱅이 논의한 저항의 의미를 현실 세계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론화시키고 있다. 이론화의 작업 속에서 그들은 저항 담론이 가지는 구조적인 차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것은 저항의 정당화와 더불어 저항 담론 자체의 체계를 성립시켜주고 있다. 계약 구조 속에서 공직자나 삼부회는 저항의 근거와 명분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이들의 저항권은 '계약적 권리로서의 저항'이다.

오트망의 저항 담론은 역사적이다. 그는 칼뱅이 이미 설정한 궁극적 차원과 베자가 분석한 구조적 차원 위에 저항권이 가지는 역사적인 차원을 덧붙이고 있다. 저항권에 대한 궁극적 의미 부여는 그것이 구체적인 역사 현실 속에 자리잡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오트망이 직면했던 이데올로기의 함정은 현실 역사가 가지는 긴장으로 인해서 생긴다. 칼뱅과 베자에 비해서 오트망이 정치적 인물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역사적 정당화는 항상 현실 정치의 이데올로기성에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칼뱅주의에서 저항 담론은 16세기의 현실 속에서 궁극적, 구조적, 역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제기되었다. 정치적 차원에서만 16세기 칼뱅주의 저항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성격을 놓치고 만다. 칼뱅과 그 후계자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치가나 정치사상가가 아니었다. 그들의 저서에는 마키아벨리와 같이 정치 논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집중력도, 사회속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 칼뱅주의자들의 정치에 대한 접근은 신학적이었다. 그들이 볼 때 정치적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의 문제였다.

"16세기는 긴장되고, 내몰리며, 근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해결될 수 없는 갈등들에 의하여 찢기워져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뿐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안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했다."<sup>144)</sup> 칼뱅, 베자, 오트망의 저항 담론에

있는 긴장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 사람의 저항 담론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이었다. 그것은 바우스마가 지적하는 16세기의 긴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은 각 사람의 내부에도 존재하였다. 그들의 내부에 존재했던 긴장은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결정했던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다. 그것은 현세적이지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칼뱅은 다윗의 통치에 관한 『사무엘 下 설교』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시키시며 각 사람이 전력을 다 해서 그분의 나라에 호소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맙시다. 또한 그 방법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그분이 우리의 삶 뿐 아니라 죽음 안에서도 언제나 영광 받으시도록 합시다.<sup>145)</sup>

칼뱅주의자들의 저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편만하게 다스려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칼뱅의 예언자적 외침은 그의 후계자들의 삶에 호소했고, 그들의 저항 운동의 모티브가 되었다.

---

144) Bouwsma, *John Calvin*, p. 4.

145) *Supplementa Calviniana, v: Sermones de libro Michaeae*, I, 105; 34-36. 의 내용을 Oberma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p. 238 에서 재인용; John Calvin, *Sermons on 2 Samuel*, p. 77.

## 참고 문헌

### 1. 일차 사료(Primary Sources)

Beza, Theodore, *On the Authority of the Magistrates to Punish Heretics*, in *Christianity and Revolution: Radical Testimonies 1520-1650*, ed. by Lewell H. Zuck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75).

—————, *Rights of Magistrates*, in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Three Treatises by Hotman, Beza, & Mornay*, tr. & ed. by Julian Franklin (New York: Pegasus, 1969).

Brutus, Julius (or Philippe du Plessis-Mornay) *Vindiciae contra tyrannos*, in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Three Treatises by Hotman, Beza, & Mornay*, tr. & ed. by Julian Franklin (New York: Pegasus, 1969).

Calvin, Jean., (*Institutes*, 1536)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F. L. Battle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5, rep., 1989).

—————, (*Institutes*, 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1-22, tr. by F. L. Battles & 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김종흡 外 옮김, 『기독교 강요』 (생명의말씀사, 1986).

—————, "Letters to Bullinger," (Geneva, December 4th, 1560), in *John Calv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by John Dillenberger (New York: Anchor Books, 1971).

—————, "On Civil Government," in *Luther and Calvin on Secular Authority*, tr. & ed. by Harro Höpfl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rep. 1993).

—————, "Preface to Olivétan's New Testament," in *Calvin commentari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3, tr. & ed. by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 *Sermons on 2 Samuel* (Pennsylvania: Banner of Truth, 1992), 김동현 옮김, 『칼뱅의 사무엘 下 설교II』 (솔로몬, 1994).

Hotman, François, *Franco-Gallia*, in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Three Treatises by Hotman, Beza, & Mornay*, tr. & ed. by Julian Franklin (New York: Pegasus, 1969).

## 2 이차 사료(Secondary Sources)

### (1) 단행본(Books)

권태경, 『종교개혁자들의 정치사상』 (요나출판사, 1995).

김영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탐구당, 1989).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윤리』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Allen, J. W.,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n the Sixteenth Century* (London: Methuen & Co Ltd, 1928, rep. 1961).

Bainton, Roland H.,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Beacon Press, 1952)/홍치모·이훈영 옮김, 『16세기 종교개혁』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Bouwsma, William J.,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Oxford: Oxford Univ. Press, 1988).

Doumergue, Emile, *Le Caractère de Calvin: L'Homme, Le Systeme, L'Église, L'État* (La Cause, Neuilly, France, 1931)/이오갑 옮김,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대한기독교서회, 1995).

Dunning, W. A., *A History of Political Theories* (New York: Macmillan, 1961).

- Eire, Carlos M. N., *War Against the Idols: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6).
- Franklin, Julian tr. & ed.,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Three Treatises by Hotman, Beza, & Mornay* (New York: Pegasus, 1969).
- , *Jean Bodin and the Rise of Absolutist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3).
- Hancock, Ralph C., *Calvin and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s*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9).
- Höpfl, Harro,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2).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MI: Eerdmans, 1931 rep., 1981).
- McGrath, Alister E.,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 McIntire, C. T. & Wells, Ronald A., *Histor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Grand Rapids, MI: Eerdmans, 1984).
-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London: Oxford Univ. Press, 1954)/양낙홍 옮김,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 Oberman, Heiko A., *The Dawn of the Reformation: Essays in Late Medieval and Early Reformation Thought* (Edinburgh: T. & T. Clark, 1986).
- Prestwich, Menna ed., *International Calvinism 1541-1725* (Oxford: Clarendon Press, 1985).
- Reid, W. Stanford e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2)/홍치모·이훈영 옮김,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Sabine, G. H.,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Illinois: Dryden Press, 1933).
- Scholl, Hans, *Reformation und Politik* (Stuttgart: W. Kohlhammer, 1976)/황정욱 옮김, 『종교개혁과 정치』 (기독교문사, 1993).

- Skinner, Quentin,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8).
- Sproxton, Judy, *Violence and Religion: Attitudes towards Militancy in the French Civil Wars and the English Revolu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 Van Kley, Dale K., *The Religious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 From Calvin to the Civil Constitution 1560-1791* (New Haven & London: Yale Univ. Press, 1996).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Edinburgh: T. & T. Clark Ltd., 1986)/송인설 옮김, 『기독교회사』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1959)/나용화 옮김,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Walzer, Michael,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A Study in the Origins of Radical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5).
- , *Exodus and R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1985).
- Wendel, François,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ip Mairet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7).
- Wolterstroff, Nicholas,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 Eerdmans, 1983).
- Zuck, Lewell H. ed., *Christianity and Revolution: Radical Testimonies 1520-1650*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75).

## (2) 논문(Articles)

- Baron, Hans., "Calvinist Republicanism and Its Historical Roots," *Church History* (8: 1939), pp. 30-42
- Engammare, Max, "Calvin: A Prophet without a Prophecy," *Church History* (67: 1998), pp. 643-661.
- Gamble, Richard C., "The Christian and the Tyrant: Beza and Knox on Political

- Resistance Theor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6: 1984), pp. 125-139.
- Höpfl Harro & Thompson, Martyn P., "The History of Contract as a Motif in Political Thought," *American Historical Review* (84: 1979), pp. 919-944.
- Keen, Ralph, "The Limits of Power and Obedience in the Later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 1992), pp. 252-276.
- Kingdon, Robert M., "The First Expression of Theodore Beza's Political Ideas,"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6: 1955), pp. 88-100.
- McIntire, C. T., "Historical Study and Historical Dimension of Our World," *Histor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ed. by C. T. McIntire & Ronald A. Well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4)
- McNeill, John T., "The Democratic Element in Calvin's Thought," *Church History* (18: 1948), pp. 153-171.
- Plantinga, Jr., Cornelius, "The Concern of the Church in the Socio-Political World: A Calvinist and Reformed Perspective," *Calvin Theological Journal* (18: 1983), pp. 190-205.
- Prestwich, Menna, "Calvinism in France, 1555-1629," *International Calvinism 1541-1715*, ed. by Menna Prestwich (Oxford: Clarendon Press, 1985), pp. 71-107.
- Runia, Klaas, "The Hermeneutics of the Reformers," *Calvin Theological Journal* (19: 1984), pp. 121-152.
- Scotchmer, P. F., "Reformed Foundations for Social Concern: A Comparison of Sixteenth European Idea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0: 1978), pp. 318-349.
- Witte Jr. John, "Moderate Religious Lib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31: 1996), pp. 359-403
- Yardeni, Myriam, "French Calvinist Political Thought, 1534-1715," *International Calvinism 1541-1725*, ed. by Menna Prestwich (Oxford: Clarendon Press, 1985), pp. 313-337.